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공청회

(2일차)

일시: 2013. 8. 21. (水) 09:00~19:00

장소: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층 대강당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속기사 최수미, 유지아

○ 마이클 커비

2일차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성함이 기록에 남는 게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저희 쪽 사무국하고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성함을 저희 쪽 기록에 남기는 것에 대해서 괜찮으시나요

○ 김영순

영어라서 모르겠어요.

○ 마이클 커비

이제 한국말 들리시나요.

○ 김영순

예.

○ 마이클 커비

드렸던 질문이 지금 증언을 하실 거고, 증언이 오늘 진실된 것만을 하실 거고 성함이 기록에

남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맞나요. 성함이 김영순이시고, 그리고 현재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가요.

○ 김영순

예.

○ 마이클 커비

오늘 오신 이유가 저희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조사위원회에 증언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까?

○ 김영순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요.

○ 김영순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 마이클 커비

중국에서 태어나셨다고요. 태어난 연도가 1937년도인가요.

○ 김영순

예, 1937년에 심양시 서탑에서 태어났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한국에 남한에는 언제 오셨지요?

○ 김영순

2003년 11월 25일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전에 북한에 가셨을 텐데 북한에는 언제 처음 가셨나요.

○ 김영순

1945년도 10월에 해방되면서 북한 평양으로 오빠가 먼저 갔기 때문에 갔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제가 알기로는요. 노동당 그리고 공산당에 지도층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 김영순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제가 알기로는 한때 선생님께서는 나중에 북한에서 꽤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과 우정을 나눈 사이까지 되신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 김영순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친구분이 무용수이셨나요.

○ 김영순

영화배우였습니다.

○ 마이클 커비

친구분 성함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영순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 성혜림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이분이 김정일 장남의 어머니인가요.

○ 김영순

예, 김정남의 생모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성혜림 씨와 어떤 우정관계였나요.

○ 김영순

성혜림 씨와는 북한에서 1950년 11월에 전쟁 시기에 조직적인 후퇴시기에 중국의 간부가족은 전부 후퇴시켰습니다. 그래서 동북 영안현 11년제 중학교를 여고시절부터 대졸까지 종전 직후에 평양에 와서는 문화성에서 조직한 평양종합예술 학교 영화연극부, 저는 무용학부를 졸업했고 저는 최승희 선생님의 제자이고, 성혜림은 영화배우였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성혜림 씨가 김정일 씨를 만난 게 언제인지 아세요?

○ 김영순

1969년 전입니다. 한 67, 68년 그때부터 정식으로 가문에 들어간 거는 69년도에 갔을 겁니다. 성혜림이가 저희 집에 들어서 5호택에 간다고 했어요. 영화촬영소 소장이 저희 위층에 살았거든요. 4.25영화촬영소 소장이 군복입은 영화촬영소에. 그래서 저희집이 그 아래층에 제가 살았으니 저희 집에 들어서 성혜림 씨가 “나 5호택에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일성의 직계가족을 북한에서는 5호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평이

는 어떻게 하고 가냐고 하니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묻지 않았고 ‘오늘 혜림 씨와 나의 만남은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만났고, 2002년 중국에 와서 KBS 방송으로 성혜림이 사망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김정일을 만날 기회가 있으셨나요. 한번도 본 적 없으신가요.

○ 김영순

북한에서 저는 조신인민군협주단 무용배우였습니다.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무용학부를 졸업하고 조신인민군협주단 군복입은 배우였기 때문에 김일성을 여러 번 봤으며 악수도 했으며 김정일은 또 최승희 작 1959년도 첫 시작한 대음악무용 서사시 ‘용광스러운 우리조국’에 저는 수많은 작품을 출연했기 때문에 김정일은 계속 그때 공연 장소에 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봤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당시에 김씨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어떤 태도를 갖고 계셨어요?

○ 김영순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이

지요. 김정은은 후에 낳았으니까 저는 잘 모르고
요. 김정일까지는 북한에서 최상위 엘리트로서
최고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국의 수뇌부이기 때
문에 당 중앙에서 일반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또
거론할 수 없는 사이가 북한입니다. 저는 일체
그네들에 대한 것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김경희,
장성택의 누이 장계순과 러시아에 갈 때도 저는
외국 여행자상점에 있으며 다 준비해 주었습니
다. 만경대 칠골할머니 저고리도 해다 입혔습니
다. 그러나 일체 발설한 것은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왜 그분들 이름을 누설하면 안 되나요?

○ 김영순

그것은 북한에서는 김일성 10대원칙 1조 1항
에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거나
오직 충성의 열도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 10대
원칙 1조 1항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걸린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오
직 수령에 대한 것은 충성의 마음으로서 정말 위
대한 수령님과 어머니당의 품에 기쁨과 슬픔도
다 아뢰어라. 아버지 수령만이 너희 인민들의 생
사운명을 책임진다.' 이렇게 북한은 되어 있습니
다.

○ 마이클 커비

제가 알기로는요. 197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

저가지고 완전히 삶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인가요.

○ 김영순

저는 1970년도 8월 1일에 제가 배우생활을 하
다가 남편이 무용을 못하게 해서 자꾸 출장을 다
니고 그래서 제가 외국 여행자상점에 들어갔습니
다. 외국여행자상점은 고위층들이 정부 대표단이
나 항일투사라든가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
이 와서 물건 요구하면 거침없이 주어야 되는 그
런 상점에, 매각비준문건에 의한 판매시행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일 했습니다. 그렇게 하
니까 정말 좋은 건 다 먹고 1호미도 타먹고 정말
멋지게 살았는데 70년도에 당비서가 저보고 신의
주에 출장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젓먹이
어린이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당의 명령이
기 때문에 어린 애가 있어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진 신의주행을 타자면 서평양역전에 나
가야 합니다. 34열차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갔는데 느닷없이 30분 지났는데 퍼런 견장에 두
줄에 별 들인 중좌가 와서 저보고 신분증과 출장
명령서를 보자고 했고 잠깐 요해할 것이 있으니
밖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나가니까 69형 지프차
가 저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 김영순

69형 지프차를 타고 어디론지 갔습니다. 보통 아크릴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보통강 구역인 듯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어떤 아파트에 내렸는데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행동을 당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정말 무슨 일일까, 이렇게 마구 의심에 싸여 있었는데 아파트 층계를 올라갔는데 몇 층인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문을 여니까 방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더니 제 옷을 다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으니까 환자복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래서 환자복을 갈아입고 그다음에는 방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한 2명의 보위원이 지키고 있었고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방이 2칸이고 여기는 세면장이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자려고 하다가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그날 밤처럼 제 인생에서 제일 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그래서 그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거미도 얼씬 안 하니까 저는 너무 당혹스럽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며 여기 내가 와 있는 곳이 무슨 곳인가, 이렇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날이 밝아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어느새 두 명의 지키는 보위원이 “내다보지 마시오.”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일주일 후에 보위원이 종이와 볼펜을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와서 어떤 간부를 알고 있

는고, 34살까지 모든 사연을, 누구를 만났으며, 무슨 말을 들었으며, 무슨 말을 했으며, 알고 있는 간부들에 대해서 다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거기가 보위부 315호, 후에 안 곳인데 보위부 312호 예심과입니다. 거기는 1호 범죄자들만 취급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두 달 조사를 받았습시다. 두 달 조사를 받고 마지막에 보위부 간부들이 5명이 오더니 저를 보고 “영자 동무, 조선노동 당원으로서 영자 동무가 한 말이 남한에 전달되었다고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고 저를 보고 이제부터 당이 취한 조치를 무조건 접수해야 되겠다고 저에게 강박을 했습니다. 뉘 앞이라고 거역하겠습니까? 그래서 실려 간 곳이 바로 15호 요덕 수용소 조선인민경비대 2915 군부대 보위부 관리소로 끌려갔습니다. 일곱 식구가.

○ 마이클 커비

알기로는 보위부가 안보위원회 이런 데이지요?

○ 김영순

네. 그 보위부 312호는 북한 앞에 있는 간부들도 누구도 모릅니다. 보위부의 특수예심과입니다. 일반아파트에 가정집처럼 위조해서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을 때 제가 집으로 가니까 벌써 집 없는 사람들이 5명이 와 있었고 어머니는 젓먹이 어린 아이들을 업고 온데 간부

들이란 간부들은 찾아가며 직장마다 찾아가서 우리 영자가 어디 갔는가 물어봐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반가워서 두 달 만에 보니까, 출장 간다고 나간 게 두 달 만에 왔으니까 저를 붙들고 막 울자고 그러니까, 이호춘이라는 보위지도원이 왜 우는가 하고, 죽었냐고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요덕 수용소에 끌려간 것이 제가 하나 그들이 말하는 장본인 죄인인데 엄마, 아빠, 칠순이 넘는 엄마, 아빠, 젓먹이 어린 애, 4살짜리, 7살짜리, 9살짜리, 이렇게 일곱 식구가 요덕으로 끌려갔습니다.

○ 마이클 커비

가족은 왜 끌려갔지요? 가족도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요?

○ 김영순

아닙니다. 북한에는 혼자, 당 유일사상체계, 보위부에 끌려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에 보니까, 요덕 수용소에 가보니까 해당 지역별로 보위지도원에 따라서 가족 단위로 몽땅 가는 것이 있고 장본인, 죄진 사람 혼자만 끌려가는 곳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색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덕 수용소는 입구로부터 1작업반으로부터 구읍리, 대숙리, 입석리, 이렇게 3개리가 10개 작업반으로 구성된 곳인데

1작업반에는 독신자들이 있고 또 입석리에 독신자들이 있고 대숙리에 독신자들이 있고 1작업반, 2작업반, 3작업반, 이렇게 10작업반까지 제가 갔을 때는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보초막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집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보초막이 크게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고 양쪽에 쌍 보초가 서 있는데 직경이 50cm인 포대경이 200m까지 거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일 정도로 아주 투명한 투항 등이 2개가 설치되어있고 쌍 보초가 서 있었습니다. 철조망으로 휘둘러있고 어랑군을 넘어서 용흥강 줄기를 따라서 용흥궁으로부터 트럭을 타고 일곱 식구가 갔는데 그때 당시 70년도이니까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인데 정말 그 땅이 50cm 들어갔는가 하면 또 50cm 올라오고 이런 데꼬보꼬 한 그런 땅을 계속 트럭으로 타고 간 곳이 정문에 가니까 정문에 가기 전까지는 평양에서 데리고 온 보위지도원한테 용흥궁의 여관에 들려 있는데 저녁때 어둑어둑하니까 이제 요덕 수용소 보위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저를 호송해온 보위원이 문건을 이만큼 인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저는 그 보위원에게 처음에 물었습니다. “어디로 저를 가는가.” 그러니까 그 보위지도원이 하는 말이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이 공화국에 어디에 있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서 일 잘하면 나오고 일 못하면 영원히 매장당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려 갔는데 정말 밤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도착한 곳이 요덕 수용소 정문인데 그다음에는 들어간 다음부터는 “야, 내리라.” 이렇게 아주 가혹한 불호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칠순이 넘은 엄마, 아빠, 애기들 조용, 조용한테 내리는데 천천히 내리니까 “빨리 내리라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담화실이라는 데를, 초가집에 들어가니까 서장이 나와서 저희들 보고 하는 말이 “당신들은 유일사상체계에 걸려서 이곳에 왔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로 이곳에 와서 살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작업반으로 가라고, 식사를 하고 3작업반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식사하러 간 곳에는 묶은 소금국에 통 옥수수를 주더라고요. 평양에서 고기 먹다가 와서 목에 안 넘어가는 것을 저는 굶었습니다. 애들은 조금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3작업반으로 일곱 식구가 가는데 아기 하나는 조그만 건 할머니가 업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큰 아이들만 제가 손을 잡고 밤새 또 한 두 서너 시간을 걸어서 3작업반으로 갔습니다. 3작업반으로 가니까 민주선전실이라는 데에서 자고 아침에 깨니까 작업반장하고 분조장이 와서 저를 보고 집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갔는데 일곱 식구가 세 평 방인데 샷 자리를 깔고 그다음에 부뚜막에는 쇠 가마를 걸었는데 이렇게 강냉이 짚으로 이렇게 부엌을 둘러쌌더라고요. 그리 들어가 앉으니까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산 것이예요. 통 옥수수를 먹으면서. 그런데 한 달 동안 살았는데 샷 자리가 다 부스러졌어요. 그러니까 흙이 풀쭉풀쭉 먼지가 나더라고요. 제가 분조장 보고 이어 샷 자리가 다 깨져서 먼지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빨간 진흙을 퍼다가 강냉이 풀을 써서 섞어서 바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흙을 퍼다가 옥수수를 물망을 해서 강냉이 풀을 써서 그냥 발랐습니다. 그렇게 바르니까, 불을 면서 바르니까 그것이 말라서 진흙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황토매트가 좋다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입국하니까 제가 아마 황토매트 땅바닥에서 9년을 살아서 건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덕 수용소에서 어머니, 아버지, 들어간 해에 그 이듬해에 아버지는 굶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었는데도 엄마, 아버지 굶어죽었는데도 관도 없고 가마니 폐기를 쪽 쪽 잘라서 거기다 두루마리 해서 지게로 지고 가서 묻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묻고 그다음에 아들 하나 학교 갔다 오다가 용흥강이 흐르는데 돌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렇게 밑에 소강이 있어요. 팽팡 도는 소강이 있는데 거기 미끄러져서 9살짜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식구 셋을 죽이고 저는 75년도에 나가다가, 했더니 또 저를.

○ 마이클 커비

잠시만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요. 왜 요덕 수용소로 끌려갔는지 아시나

요? 신문을 받으셨을 텐데 그 신문 내용을 잘 생각해보시면 왜 끌려가게 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영순

그런데는 신문 받을 때 제가 성혜림에 대한 것도 다 썼습니다. 제가 만약 요덕 수용소에 간다고 하게 되면 아마 내용을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혜림이 집에 와서 5호택에 간다는 말을 다 썼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인 즉은 그런 내용을 다 썼기 때문에 저는 5호택, 5호택이라는 것은 김정일의 직계가족인데 요덕 수용소 가는 사람을 죄명을 많이 주거나 또는 면한 수가 결정되는 것은 북한에서 정치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한도 없이 재판도 없이 죄명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혹시 내가 성혜림이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한 것을 아마 김정일이 가문 안에, 5호택에 가면서 김정일이 자기 저택에 오면서 누구에게 말을 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김영자한테 이야기했다, 친구한테. 저는 경희도 잘 압니다, 김경희도, 그때 당시로써는. 그러니까 아마 김병하가 당시 보위부장 할 때 69년도에 김일성이 녹음강연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강연에 의해서 간부들을 혁명화 할 때 대한,

○ 마이클 커비

잠시만요. 김씨 가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

가요.

○ 김영순

없습니다, 저는. 알고만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성혜림은 작가동맹위원장 월북한 이기영의 딸며 느리였거든요. 이평이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5호택에 가니까 그것을 김일성한테도 김정남이 해산할 때까지 비밀에 붙였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황장엽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70년도에 그것을 발설하는 것은 다 총살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왜 그랬지요?

○ 김영순

그것을 왜 그랬냐고 그러면 북한 사람으로서 는 답변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김 씨 왕조에 대해서 내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김정일이 여자 문제로 뭐가 있었다고 해서 자기의 수행, 누가 가까운 중앙당에 있는 분이 연회장에서 이야기해서 총살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 이런 세 사람에 대한 것을 김씨 왕조고, 김일성이 수령 독재 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문 안에 대한 것을 옛날 왕정 복고, 독재정치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마이클 커비

요덕 수용소에서는 얼마나 있었나요?

○ 김영순

9년 동안 있었습니다. 못나오는 완전 통제구역에 4년 요덕 수용소 구읍리에 이쪽에 혁명화 구역에 5년, 그래서 합 9년 있었습니다. 완전 통제구역에 끌려갈 때는 저는 하늘, 땅이 맞붙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통제구역은 70년도에 75년도 주민등록재주소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의 지주, 부농 그다음에 월남자, 그다음에 장로목사 가족들만 씨를 말리우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4년 살았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 두 곳이 모두 요덕 수용소 안에 있었던 것 인가요.

○ 김영순

예, 안에 있습니다. 산을 하나 가로질러서 구읍리, 대숙리, 입석리, 용평리, 평전리 이렇게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가족과 선생님께 했던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김영순

저는 내가 무엇 때문에 요덕에 왔는지는 모르

지만 어쨌든 성혜림과 관계된 것은 어렵듯이 알았지만 내가 발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요덕 수용소에서 어머니, 아버지 죽고 그래도 당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오직 일을 잘해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산바를 타고 다니며 9년 동안 솜바지 저고리, 작업복을 더덕더덕 기워서 지하적도 다 기워서 허리에 찢을 동이고 새끼오래기로 실을 들들 말아서 하면서도 머리를 기른 건 가위로 잘라서 그냥 묶고 이렇게 9년 동안 살면서 반드시 내가 나가야 한다는 것, 살아서 나가서 반드시 일을 잘하리라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까지는.

○ 마이클 커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나요.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노동을 했나요.

○ 김영순

정치범 수용소는 요덕 수용소는 밝을 때부터 어두울 때까지가 노동시간입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통 옥수수를 삶아서 먹으면서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삶아놓고 아침에는 4시 반까지 출근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일터에 나가야 하고 저는 공업대대에 다녔습니다. 저 혼자 노력자고 여섯 식구가 다 비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공업대대에 출근했는데 뛰어다녔습니다. 세 번 지각하면 하루 식량을 자르기 때문에 매일 뛰어

다녔고, 간이 삼 행지가 부어졌고 판감인지 계속 타먹고 뛰어다녔고 뽕나무에서 떨어져서 쇠골이 부러졌는데도 동여매고 석 달을 아물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멘트 창고라도 나와서 지키라고 할 정도로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덕 수용소는 풀을 8월에 800kg을 베라고 합니다. 800kg을 인간이 어떻게 뽑니까? 요덕 수용소는 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뱀이 많아서 풀을 베려고 낫을 휘두르는 중간에 뱀이 혀를 벌름거리어서 탁 돌아서면 낫을 권 채 들들 굽어서 산에서 밑에 떨어집니다. 참 생명이 질겁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똥에 박힌 옥수수도 먹고 집어 먹어도 털이 안 나고 또 생뱀을 날채로 잡아서 대가리 툇 떼고 꼬랑지 떼고 껍질을 쪽 벗겨서 생채로 먹은 사람들이 온 전신에 기생충 흑이 돌아서 죽는 시체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나무를 찍다가 벌목에 나무가 치여서 다리가 잘라지거나 허리가 두동강 나서 죽는 시체도 말할 여지 없이 많았고, 또 펠라그라라는 아프리카 토종병에 걸려서 흑문이 열려서 바깥에 보이는 것은 다 튼 것처럼 짹짹 찢히고 피가 보송보송 납니다. 다 철색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흑문이 열려서 통 옥수수 먹은 즉시 흑문이 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도 길을 메워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린 애들 거기서 낳는 애는 없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들어간 애들이 식독이 올라서 배만 볼록합니다. 그런데 뱀이 배 안에 든 새끼가 있습니다. 털이 안 난 거 이런 거

세 개에 네 마리씩 있거든요. 그거를 붙에다 그 슬러서 돌절구에 찧어서 그 식독 오른 배에 아이들이 식독이 가라앉는다고 그 쥐를 잡으러 엄마들이 쥐굴이라는 건 일 나가서 다 들쳐도 쥐도 바른 곳이 요덕입니다. 쥐잡아먹은 날은 특식이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도농통 먹고 영흥강 줄기 내려오는 고기도 별 거 별 거 다 생채로 먹고 날아다니는 거 다 잡아먹고 기어 다니는 거 다 잡아먹고 돌아나는 풀 다 뜯어먹는 곳이 수용소의 참상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마이클 커비

수용소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었나요. 선생님과 선생님가족에게 어떤 음식을 주었나요.

○ 김영순

거기는 어떤 음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통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 그거하고 소금입니다. 그리고 기름도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 김영순

항의를 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당신네들은 죽어 마땅하나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로 이곳에 와서 살게 한데 어떻게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서는 정말 자급자

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일언반구도 할 수 없으며 불평도 할 수 없고, 매일 사상투쟁회의를 합니다. 매일 사상투쟁회의하고 월 사상투쟁회의, 분기 사상투쟁회의, 상반기, 하반기 사상투쟁회의, 연말 사상투쟁회의에서 족쇄를 채워간 건 돌아온 것이 한 명도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한 사상투쟁회의에서는 몇 시간씩 있었나
요.

○ 김영순

두세 시간씩 저녁 어두울 때까지 일하고 나서 민주선전실에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상투쟁회의를 시작하면 다 줄거든요. 바깥에서 덜덜덜 떨고 여름에 더위에 그렇게 하고 하니까 다 줄거든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운동장을 5바퀴, 10바퀴 들고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세수하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나가서 눈으로 세수하고 또 운동장을 대여섯 바퀴씩 들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상투쟁회의하면 족쇄를 채워가지고 간 건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요덕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휴식시간에 저희들끼리 그렇습니다. “야야, 너 이 새끼 왜 들어왔어?” 그러면 김일성 목에 흑이 나서 들어온 사람, 흑이 난 걸 말해서 들어온 사람, 김일성의 석고상을 깨서 들어온 사람, 김일성의 초상화를 오손시켜서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남한비디오를

봐서 들어온 사람, 남한방송을 들어서 들어온 사람, 저처럼 성혜림하고 친구고 김정일의 사생활을 알아서 들어온 사람, 김정남이 73년도에 김정남의 탄생을 폴란드에 유학갔다 온 사람이 여자한테 봉화진료소에 근무했습니다. 그 여자가 성혜림의 해산방조를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집에 와서 친척한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 그걸 바깥에 이야기해서 73년도에 요덕에 들어왔는데, 그 여자는 또 들어와 가지고 김하찬이라고 국가기획위원회에 참심원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북경대학 유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부인이 또 나와서 자기는 정남이 해산된 것 알고 있어서 들어왔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족쇄를 채워가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하찬 세대는 저하고 용평리에 건너갔다가 제가 나올 때 두 집이 나왔습니다.

○ 마이클 커비

사상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체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 김영순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고 자기를 개척하는 운명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그렇게 배워서 그 일호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이며 자기를 발전하는 원동력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요덕 수용소에서 나와서 생각할 때는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의 수령제일주의, 수령독재가 주체사상의 맨 위에 내리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의 모든 독재, 수령독재와 수령제일주의에 그것이 눌러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요덕 수용소에 나온 이후에 신뢰를 상실하고 모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탈출할 생각을 1989년부터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요덕 수용소에서 풀려난 것이 언제였나요. 1989년이었나요.

○ 김영순

79년입니다. 1970년도에 갔다가 1979년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89년에 평양보위부 반탐국장이 함경남도 보위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보위부에 실려 갈 때는 북한에서 벤츠로 실어갑니다. 차에 실려 가지 그냥 도보로 걸어서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츠를 타고 보위지도원하고 같이 함경남도 도보위부로 갔는데 저는 그때 도보위부에 올라가서 총계에 올라가서 평양에서 올라온 반탐국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

해서 앉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덕 수용소 9년을 거쳤는데 왜 또 보위부가 불렀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놀라지 마십시오. 잠깐 요해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성혜림은 김정일의 처도 아니며 아들도 낳지 않았다. 이것은 새빨간 유언비어다. 다시 한 번 어디서 들었거나 유설할 때는 용서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벤츠를 타고 집에 왔는데 일주일동안 문소리만 나면 심장이 막 떨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붙들려 오지 않나 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대한민국에 올 결심을 굳혔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남한에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 김영순

19년 걸렸습니다. 보위부 감시 속에 저는, 70년도부터 계산하면 보위부 감시 속에 31년을 살았습니다. 1970년도부터 2001년까지.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보위부의 감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벗어나서 어떻게 대한민국에 왔습니까?

○ 김영순

저희 남편은 1970년 7월 4일 99년도 평양에 가서 보위부에 있던 사람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 남편은 신광수, 일본의 일파 일본 간첩으로 북파 공작원으로 파견되었던 신광수의 밀보에 의해서 영원히 못나오는 수용소로 갔다는 말을 들었고 현재까지 43년 동안 생사 여부를 전혀 모르는 것이 북한의 그것이 정상인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물어볼 데도 없고 답변 주는 데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런 것이 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970년 7월 4일에 제 남편은 없어진 이후로 현재까지 생사여부 모르고 저는 70년도 8월 1일에 보위부 조사를 받고 요덕 수용소에 갔고 그 후에 79년도에 요덕에서 나와서 나오는 것도 저는 대단한 간부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나옵니다. 못나오는 구역에 갔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북한에서 사망했는데 차수입니다. 그래서 요덕 수용소 소장으로 이력의 공백에 3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저는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소장선생님, 저는 김석천 오빠의 동생입니다. 저는 요덕 수용소에 왜 들어 온지 모릅니다. 식구가 다 죽었습니다. 저 좀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못나오는 구역에서. 그런데 그곳은 아마 북한에 알게 되면 큰 일 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요덕 수용소에서 나와서

89년도부터 탈출을 시도했는데 도저히 국경연선에 이는 사람도 없고 함흥에서부터 떠나자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덕 수용소에서 나와서 장진 증흥광산에 20세대가 집단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김정일은 “금도 나의 것입니다. 송이버섯도 나의 것입니다.” 하는 북한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광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하여 다 금을 캐서 바치는 것이 당자금 확보를 위해서 운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광에서 3년 일하다가 사회에 나왔으니까 명절에 함흥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흥시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분주소 소장을 만났어요. 평양에서 공군 협조단에서 클라리넷도 불던 사람을 만나서 평양 함흥 거주를 제가 좀 도와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올 때는 온 식구가 이렇게 10손가락의 아기를 비롯해서 오르내리기까지 발설하지 않겠다는 손도장을 찍고 나오기 때문에 수용소에 대한 설은 일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이력에는 요덕 수용소 농업 10년, 이렇게 9년, 이렇게 밝힙니다. 북한에서 이력에다가.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그 사람보고 남편이 기술자 되어서 근방에 배치 받았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살기가 힘드니까 저를 함흥의 거주 좀 시켜달라고 1년 만에 비법으로 함흥 거주가 되어서 함흥에 81년도 7월 24일 인지 나와서 함흥에서 19년 살다가 왔는데 정말 90년도부터 배급을 안 주니까 고난의 행군이 시

작되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질서가 어느 정도 문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국경을 넘자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경까지 가자면 제가 요덕 수감자이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서 붙들린다면 저는 총살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부에 대한 여행증을 돈 천 원을 주고 뺐습니다. 그래서 천 원을 주고 떼 가지고 침대권도 300원을 주고 뺐습니다. 북한에도 2000년도, 2001년도에 탈북을 했는데 2001년도는 질서가 다 이지러져서 그런 비리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증도 뺄 수 있었고 또 침대권도 살 수 있었습니다. 야매로 그렇게 사가지고 제가 탈출을 국경을 2001년 2월 1일 밤 11시에 남양 도문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보위지도원을 한 상 잘 차려먹이고 그다음에 돈을 500원만 주고 내가 2월 10일에 다시 돌아올 때는 돈을 들킵 주겠다고, 지금 돈을 벌러 가니까 조금 참아달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일에 탈북 해서 브로커를 찾아야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길에서 북대교회라는 데를 찾아가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대교회에 다니다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식당, 그다음에 파출부, 이런 것을 2년 6개월 동안 하다가 브로커가 생겨서 2003년 7월 16일에 할빈, 길림을 떠나서 할빈, 상해, 난닝,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거쳐서 5개월 하루 만에 대한민국에 2003년 11월 25일에 입국하였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이 겪으신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배우셨나요?

○ 김영순

저는 북한에서 최상의 엘리트로서 34살까지 1호미를 타먹고 정말 아주 멋지게 살았습니다.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최상위의 수준으로 살다가 저희 오빠가 전쟁 시기에 서울을 점령한 사단의 참모장입니다. 제 3, 4, 근위서울제3보병사단이라고 북한에서는 호칭을 달고 있습니다. 3444 105땅크사단 류경수 사령단이 사단장 하던, 사령관 하던 데가 이렇게 3개의 사단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3일 만에. 그래서 저희 오빠는 거기에서 사단장 이영모가 하다가 7군단장으로 올라가고 저희 오빠는 사단장 대리 임무를 수행하면서 8월 달까지 그냥 남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계선에서 북군 포사격에 심장을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강건 참모장이 제일 사랑하던 나이 어린 참모장입니다. 25세 때 대령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빠는 해방 이후에 지금 말이 첫째로 돌아가는데 김일성하고 연길사령부 후보 중이 사령관 하는데 작전 참모를 하다가 조국계선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안강보 훈련소 때부터 인민군대에 있었고 최현이 연대장 할 때 우리 오빠는 연대 참모장을 했습니다. 지금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아버지하고 앞, 뒤 집에 살

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북한에서 최상의 영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뢰 속에. 애국열사 가족이니까. 그랬는데 김일성의 선물도 받던 집에서 살다가 요덕에 가게 되어서 요덕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저희 부모님들이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을 택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10년이 되었는데 자유를 만끽했기에, 또 대한민국의 생각에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있고 제가 요덕 수용소를 거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을 수도 없으며, 또는 요덕 수용소를 거쳤는데 요덕 수용소에서 정말 최고의 인생 대학을 저는 졸업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거처야 할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생활을 거쳤기에 오늘의 내가 정말 인간의 고난을 정말 직접 당하고 숙성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에 열심히 살고 있고 불평 없이 자유를 만끽하였기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 당국이 저에게 가한 혹독한 처분이 저에게는 교훈이 되었고 저에게 오늘의 삶의 진전도를 높이고 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었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일가족에 7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요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 김영순

요덕에서 살아남은 것이 4명입니다. 딸은 하나, 농민한테라도 시집을 가라고 21살 때 입양했는데 32년 짜 함경남도에서 산골에서 산다는 것만 알지 모릅니다. 53살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들 하나 막내는 89년도에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들려서 총살당했습니다. 23살에 총살당하고, 아들 하나 여기 왔는데 두 번 복송되어서 기관지 출혈을 보위부 감방에서 2kg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흡기 장애인 2급으로 살고 있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48살인데. 사지는 멀쩡한데 폐가 3분의 1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덟 중에 두 생명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영원히 못나오는 수용소, 엄마, 아버지 요덕에서 죽고, 아들 하나 물에 빠져 9살 짜리 죽고, 스물 세 살에 총살 당하고, 딸 하나 입양하고, 현재 장애인 2급인 아들하고 저하고 두 생명이 살았습니다. 뒤 돌아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북한 체제에 대해서 씩씩하십니까?

○ 김영순

북한 체제는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인민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주고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에는 아버지 수령님과 어머니당에 품은 기쁨도 슬픔도 다 아뢰라, 아버지 수령만이 너희

들의 생사 운명을 책임진다. 정말 태어나면 애기 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 21세기 두 태양을 모시 읍기에 그토록 행복한 인민은 없다는 데에서 세 뇌된 사람입니다, 저도. 정말 김일성이만 악수도 하면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였고 김일성이 베푸는 연회에 참가하면 정말 그야말로 최고로 만족감을 느끼고 살았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 각하다 보니까 인간이 대한민국은 5천만이 다 잘 난 나라, 금구덩이에 활무대가 펼쳐진 나라, 능력 있으면 기회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북한은 그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너도 나도 다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너도 갈 데 가고, 올 데 오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사 하는 것이 바람이고 전 세계 인류가 다 21세기 냉전시대 인류의 지구촌 어디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다 살고 있는데, 인류의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북한 하나만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동포에게 자유와 햇빛을 주려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북한인민에게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 길을 개척하는 자유민주주의 길을 택해 주십사,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 마이클 커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김 여사님, 요덕에 계실 때 높은 간부들도 있었지요. 높은 간부들에 대해서 조

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영순

예, 있습니다. 북한의 요덕 수용소에 정사천 사단장이라고 한강을 건너서 남진하던 사단장입니다. 원용선 사단장도 있었습니다. 두 사단장은 요덕에서 처음에 요덕 수용소에 저희들은 총칼 앞에서 일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정사천 사단장에게 눈두렁을 베고 드러누워 있는데 경비대 19살, 20살짜리들이 와서 “야, 이 새끼야, 일어나 일하라.” 이렇게 하니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다가 펠라그라 걸려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월균 프룬제 아카데미아 유학한 General, 대성 하나짜리도 요덕에 아들이 남한 비디오를 봐서 들어왔습니다. 두 부부가. 1 작업단에 있었고 우리 소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여기 최민수의 외할아버지, 강홍식의 아버지, 강홍식 선생은 북한의 내 고향의 첫 연출가이며 대단한 영화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그 분도 요덕 수용소에 들어와서 1년 만에 펠라그라가 걸려서 돌아갔고 최승희도 북창관리소에 가서 돌아갔고 67년도에 숙청당하고 그다음에 축구선수 그 사람이 박영일인지 그러는데 축구선수입니다. 체육인대회 공화국의 인민체육인입니다. 그 사람도 요덕 수용소에 들어와 있었고 정성희 안과박사도 들어와 있었고 김동규라고 정말 국제 스피이 공작을 하던 그 사람도 요덕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최승희 제자, 현정숙이 제 1제

자이며 최승희 춤의 판박이이고 대단한 본인테저의 동창하고 살았거든요. 그 분도 요덕에 와 있었고 정말 요덕 수용소의 신불출이 월북한 만담가 대한민국에서 만담가인데 그 사람도 북한에 갔는데 남한 어선들이 붙들리면 북한에 전향하라고 늘 말하던 그분도 요덕 수용소에서 73살에 들어와서 75에 펠라그라가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성함을 다 적어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분들 이름 있잖아요. 나중에 이름 다 적어서 저희한테 주실 수 있어요?

○ 김영순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고맙습니다. 또 그분들 중에서 혹시 수용소에 계속 있는 분들 또는 나오신 분들,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 남아있는 분들 또는 수용소에서 나온 분들 상황까지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 김영순

상황은 알고 있는 분 나온 분도 있고 강홍식 선생의 아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 충구가 영화인이거든요. 이충구가 연출가인데 그 분이 김정일한테 제의서를 냈습니다. 강효선 동

무를 평양에 올려오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그 친구가 방침 받고 평양에 올라가서 75년도에 출소해서 강효선은 나왔거든요. 강홍식 선생 아들. 나와 가지고 지금 강효재, 강효재는 양강도 예술단의 연출가이고, 그다음에 강효선은 평양영화부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운명의 강선재강소 지배인으로 출연했습니다. 회복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요덕 수용소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연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이는 분들 중에서 수용소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 김영순

저는 수용소 제일 초기 입소자이기 때문에 1969년에 요덕 수용소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화구역으로 1979년도 김일성의 녹음강연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김병하가 충성선물로 만든 것이 요덕 수용소인데 김병하는 1983년도에 조선노동당에서 3대까지 멸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덕 수용소에 제가 초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여기 온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에 드나들면서 들어간 사람들 서림천이라고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온 사람 있고, 안혁, 강철환, 김태진 이런 사람들이 요덕 수용소에 있는 것으

로 알지만 여기 와서 봤지 요덕 수용소에서는 모릅니다. 저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70년도부터 반동이 된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온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선생님이 수용소에서 나오고 난 후에 나오신 분들도 있으신 거네요.

○ 김영순

그럼요. 있겠죠.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데 후에는 기간이 짧아졌다고 그래요. 함흥도 보위부에 함흥시에 살 때 계획지도원을 길에서 만났어요. 가족지도원 하던 여자도 만나고. 다 중좌, 상좌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저를 보고 사회 나오니까 좋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하니깐 후에 요덕 수용소는 조금 북한에서 이제 각 나라 대사관에 갔던 사람들이 유일사상체계 걸린 것, 남한 사람들을 접했거나 뇌물 받았거나 한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나중에 수용소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만날 기회는 있으셨나요?

○ 김영순

교포 하나 최승희라고 그 여자는 무용가 최승희가 아니고 귀국동포 최승희입니다. 그런데 남

편이 북에서 청진항에 도착하자 요덕 수용소로 왔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다 들어갔다 온 사람 봤습니다. 나와서 고원군에 배치 받았는데 최승희라는 여자는 북한에서 식당도 운영하고 살아가고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함흥시에 나와 산 것 있고, 그 다음에 배우 백순애라고 남편도 북한의 김정호라는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하던 남편을 갖고 있는데 요덕 수용소에 갔는데 백순애는 저하고 예술대학 동창입니다. 민족성악부 동창인데 노래도 잘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심청이 후보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남편이 최 뒤인데 김정호 역을 했습니다. 요덕 수용소 10년 살았는데 함흥에 나와서 살아요. 고원에 나왔는데 함흥시 연극단에 남편이 있다가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순애는 남한에 가족이 있습니다. 오빠도 있고.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돈을 조금씩 받아 쓰고 살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수용소에서 간수 사진들을 보여드렸다면 간수 이름이나 간수가 누구였는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김영순

그런 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수용소에서 1작업반에서 2작업반으로 갈 수도 없고, 북한에서 죄수들끼리 만날 수 없거든요. 요덕

수용소에서 73년도에 탈출을 시도하던 젊은 사람 두 명을 공개처형 했습니다. 그래서 3작업반과 4작업반 사이 농터에서 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사형장에서는 공화국 국장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초상화는 안 모시거든요. 그래서 국장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공개처형했는데 자갈을 물려서 내웁니다. 한 절반 죽여서 나와요. 그리고 눈을 씌우고 대하나 세우고 거기다 붙들여 매서 탈출시도한 건 반혁명분자라고 하면서 안전원들이 보위원들이 들어 나와서 경비대가 “인민의 이름으로 썩.” 하고 총살하는데 거기에 간 사람들이 우리 죄수들이 다 거기에 갔거든요. 가서 그 장면을 보고도 낯색 하나 동정의 표시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이 바로 수용소 내부 사정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 소냐 비세르코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권은 반드시 주민들의 식량을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수용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식량을 찾으셨지요? 제가 알았을 때는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사태가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음식을 받았나요?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음식을 구하셔서 드셨나요?

○ 김영순

나온 다음에 장진 중흥광산에 배치 받았으니 광산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건조로에서 일하고 하부조이고 그래서 광석이 나오면 차에 싣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서는 힘든 작업을 했는데 사회 나왔다 뿐이지 노동강도는 썼거든요. 거기서 배급을 타고 살았고, 월급을 타고 이렇게 살다가 함흥에 나와서는 제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 가공하는 것을 귀국동포한테 배워서 재단으로부터 가공까지 표준조작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19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민반장을 7년 했습니다, 요덕에서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민반장은 제가 탈출할까봐 인민반장을 시켰기 때문에 보위부가 저를 만나고 1989년도에 만나고 간 이후에 인민반장을 시켜서 은퇴하고 양복점에서 나와서 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990년부터 함흥시 배급을 못줬거든요. 그런데 1990년부터 배급을 못주면서 1993년 지나서는 시장을 도입하지 않으면 못 살았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첫해에 쌀 한 kg에 120원 했거든요. 화폐 되기 전에. 화폐되기 전에는 120원은 북한에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으니까 쌀을 사먹을 수 없어요. 저는 바느질해서 북송교포들도 바느질해 주고 옷을 해주면 옷가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쌀 사먹고 국수도 사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배가 고파서는 오지 않았습니니다. 직장에는 출당

되고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돈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1989년도, 그러니까 2001년까지 바느질하고 인민반장해서 수당을 30원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 소나 비세르코

그러면 가족이 음식을 먹기에 충분한 정도였나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그 당시에 식량원조를 하고 있었는데 식량원조가 있었는지 들으셨나요. 가족이 국제원조 식량을 받은 적 있으세요?

○ 김영순

북한에서 국제UN 쌀이랑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북한은 식량 해결된 나라로 UN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오는 식량은 사료가 들어옵니다. 말머리, 소머리 그런 포대에 강냉이 옥수수가루하고 옥수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미국갯밭 있는 데에. 그런데 그 쌀을 보름치씩 다 주지 않습니다. 한 달 분을 다 주지 않고 2월 16일, 4월 15일, 8.15, 9월 9일, 10월 10일, 12월 27일, 헌법절, 음력설, 이렇게 배급을 하루치씩 줍니다. 그러면 저는 400g을 타거든요, 300g. 보충미 100g을 떼고 그 300g을 타러 봉투를 가지고 가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그렇게 하고 북한에는 2호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만톤이 2호미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2호미라는 것은 전시군량미입니다. 1호미는 김일

성 가문 안에 가는 주식궁에 가는 건 1호미라고 그러고 2호미라는 건 전시군량미입니다. 그것은 각 도에 2호 창고가 있고 거기에 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쓸 쌀이. 그것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의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 오고 나니까. 그것을 풀어서 인민들을 먹일 거면 괜찮고, 그리고 핵을 만들지 않으면 2년 먹을 식량이 북한에 인민들이 나옵니다. 하루에 북한주민들이 소모량이 1만톤입니다. 1만톤인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강성대국 지금 21세기 지구상에 북한을 침략하자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김씨 왕조를 자기네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김씨 왕조를 지키려고 핵을 만드나 이거지요. 그것을 만들지 않고 인민에게 쌀을 주면 전세계 지원물을 인민에게 해당되면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졸업한 여자들이 가정부인하는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 주체 말대거리, 소대가리 그런 쌀포대가 들어오면 뭐이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머합니다. 말대거리, 소대가리 그런 다른 나라 사료를 주체돼지들이 잘 먹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피타는 호소이며 유머 와중에도 가장 흑독한 유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배급소에 가서 머리가 하얗게 배급날짜만 기다리다가 머리가 하얗게 백발됐다는 할머니의 구슬픈 이야기가 북한의 먹을거리에 대한 욕망이 컸으면 할머니의 하소연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하소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급날짜만 기다리다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는 것이 얼마나 구슬픈 이야기라는 걸 전 세계 인류라면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장 곤란하던 1997년도에 함흥시 인구 85만에 5만의 아사자, 공장노동자 만명의 천명의 아사자가 배출할 때는 그저 쓰레기장에 가면 복고기 알을 먹고 죽은 시체, 살구씨를 먹고 죽은 시체, 정말 새까맣게든 거지들이 산지사방에 죽어서 널부러져 있는 시체를 안전원들이 실으라고 합니다. 아이들보고 꽃제비들 보고. 그러면 그거 실어서 전쟁 시기 폭탄구덩이 가서 두르르 쏟습니다. 어떻게 벼구멍도 없고 이름 석자도 묻지 않고 그렇게 매몰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북한에 그 인간에 대한 그 위정자들을 제외한 인간에 대한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수분자 오백만만 있으면 통일할 수 있습니다. 자강도 인민들만 가지고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인민을 숫자로 논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귀중합니다. 이런 곳을 저는 전세계가 가차 없이 전 세계인류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게 가차 없이 전세계 인류,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게 가감 없이 호소해서 북한에게 자유와 먹고살게 해주는 것 부탁드립니다. 이식 이천입니다. 먹거리는 곧 하늘이며 먹어야 성군 정치도 하고 인민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를 안 주고 통제만 가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하나의 감옥이며 철조망으로 휘둘러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려 주십시오, 북한 인민들.

○ 소냐 비세르코

공식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나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 김영순

그 설명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죽어도 김일성을 위하여 죽는다고 하고 정성홍 마라톤 선수가 화란에 가서 일등을 했을 때 남한 기자가 방송 마이크를 땀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문의하니까 우유한 컵에다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며 뛰었기 때문에 1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민은 67년 간 세뇌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로봇트 화가 되어있습니다. 다 하나의 목소리로 각본에 의한 말을 하게 되어있는 것이 북한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가할 수 없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다 각본에 의한 말을 하고 2000년도에 보위부 지시 말반동 다 잡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1997년도에 북한의 간부들이 1990년도부터 배급을 못 주니까 아이를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군대 나갈 17년대, 아마 1990년도부터 2017년도면 군대 나갈 아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작아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명 이상 아이를 낳아야 간부로 등용한다는 교시가 있었거든요. 교시는 김일성의 법이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북한에는. 당이 결

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사회를 전 세계가 이해할 수도 없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을 대한민국과 전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이해할 수도 없고 폐쇄, 그래서 북한은 하나의 유일사상체계, 당의 사상체계 하나입니다. 여기는 사상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여야당이 계속 왈가왈부합니다. 전 세계는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해서 다 하지만 북한은 하나의 사상 체계에다가 플러스 독재, 플러스 폐쇄, 이꼬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김 여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의 정권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수용소는 오늘날 정치수용소는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순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를 종전직후에 사회주의 건설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 김일성 체제와 김정일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갔습니다. 남한 문제로 자유민주주

의를 숭배했다거나 수정주의 사상이거나 또는 월남자 치한들, 목사 장로 가족들을 씨를 말리우는, 이런 곳으로 해서 정치범 수용소가 여러 개, 10여 개 남아대던 곳이 UN의 항의에 의해서 지금은 5곳이 있다고 합니다. 혁명화 구역으로 요덕, 화성, 수송, 개천, 북창, 그다음에 덕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창관리소는 간부관리소입니다. 김창봉이, 정병갑이도 북창관리소에 가 있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군복을 입혀서 장례식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21세기 히틀러가 만든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보다 더 한 수용소가 왜 존재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김일성 가문 안에 처처럼 자유민주주의에 오니까 김일성 여기 대통령의 가문안과 친구가 되면 얼마나 살기가 좋겠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는 김씨 왕조의 내부생활을 알면 목이 달아나는 세상이니깐 이것 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수령 3대 세습을 하는 왕정복고 독재정치, 세계적으로 유일무이의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정치범은 일단 유사시에 체제가 뒤바뀐다면 그 정치범들을 내놓게 되면 지금 여기 몇 명은 사람도 지금 세계에다 대고 계속 말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정치범들을 다 풀어놓는다면 얼마나 북한이 혼란 상태에 빠지겠습니까? 체제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서 다 조선민주주의라는 타이틀 속에서 밖에 내다가 다다다닥 총으로 쏘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을 사회주의 건설에 아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지탱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다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그 사람들을 일단 유사시에는 다 땅굴에 들어가서 폭발시켜서 다 죽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해체되어야 되고 북한이 자기를 인정하는 북한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위장하고 포장하고 정말 감언이설로 전 인민을 세뇌시키고 말도 못하게 입, 코, 눈, 귀, 다 엮어매어놓은 곳이 북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해서야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전 세계가 인권이라는 수로, 북한에는 인권이라는 수로가 없습니다. 인권이 다 해결, 해방 이후에 해결된 나라이기 때문에 수령 복을 탄 인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이 정치범 수용소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만일에 이름으로 독립기구가 선생님께서 독립기구가 이 정치범 수용소들을 조사하려 갈 수 있다면 그 위치들을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김영순

저는 요덕 수용소를 제외하고는 개천에 하나

있다는 것 알고, 그다음에 화성, 수송, 함경북도,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요덕,

○ 마이클 커비

선생님, 요덕 수용소가 어디 있는지.

○ 김영순

요덕은 제가 어디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님. 요덕 수용소에서 나오셨을 때 그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도 수용소에 있다가 나왔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여사님처럼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영순

그런 것은 없고요. 저는 평양에 친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 그러니까 1979년 80년대에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에 가니까 우리 친척이 요덕에 간 것을 제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알지, 제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다 우리 친구들은 평양에 있는 예술가들이라 제가 아주 장성급 부인이 되어서 농촌에 지방에 가서 살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는 요덕에 갔다 온 것은 모릅니다. 서로 말을 못합니다. 그것이 북한에서는 정치범이 무슨 자랑이겠어요? 북한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 마이클 커비

김 여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기꺼이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사님께서 진행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국제 사회가 세계가 여사님의 말씀을 전해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제 두 번째로 증언을 해주실 분들을 모시겠는데요. 두 분께서 함께 증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두 분께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통역수신기 먼저 착용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측에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사위원회 사무국과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함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 성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 맞습니까?

○ 정광일

맞습니다.

○ 김은철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한 분은 정광일 선생님이시지요? 누구시지요? 다른 분은 김은철 선생님이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증언하실 내용이 진실 된 내용이라고 약속하십니까?

○ 김은철

약속합니다.

○ 마이클 커비

우선 김은철 선생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로 탈출하기 이전 북한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철

저는 중산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키가 작은 탓으로 군에 입대 못하고 일반 농사로 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에 식량난이 겹쳐서 진짜 굶어죽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먹고 살기위해서 중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와가지고 공항에서 너무 검열이 심하고 또 북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좀 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오래 있지 못하고 한국행을 결

심하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남한에 오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나요?

○ 김은철

중국에 있을 때 연길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
다. 거기서 저희는 한국인의 도움으로 러시아를
통해서 한국에 가면 된다고 해서 저희 일행 중
이동명, 장호영, 최광호, 방영실, 허영일, 최순일
일행들과 중국 밀산을 통해서 러시아로 오게 되
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 김은철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시골 마을까지 가지
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한 시골집에 들르게 되
었습니다. 거기서 시골집에 고발을 해가지고 국
경수비대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국경수비대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으셨
어요?

○ 김은철

국경수비대 구류장 자체가 너무 한심했고, 저
희들 잡혔을 때 겨울이라 너무 추웠고, 빵을 줬
는데 배고프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국경수비대가 선생님을 포함한 그룹을 다시
중국으로 보냈나요? 어떻게 했지요?

○ 김은철

제가 수비대에 잡혔을 때 러시아에 현지에 살
고 있는 한인 통역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그래
야 대화가 되니까 그렇게 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잡힐 당시에 러시아
에서 중국으로 넘긴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러시아에 현지에 있는 UN인권피난위원회에 회
원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분들이 도움을 주셨나요.

○ 김은철

예, 그분들 만나서 저희가 한국까지 가겠다고
한국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
기서 난민신청을 받았고요.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다 찍은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 김은철

저희는 그래서 아, 이제는 난민신청도 받았겠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러시아 측에서 와가지고 북한대사가 너희들 만나러 왔는데 만나겠다고 그렇게 물어보기에 저희가 안 만나겠다고 왜 안 만나냐고 해서 저희는 여기서 북한을 다시 가면 다 죽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면 너희들 안 만나겠다고 종이에다 사인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 사인을 해가지고 북한대사관 측에 넘겨줬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 김은철

우리 뜻은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북한대사가 와가지고 우리하고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무교육까지 받은 너희들이 왜 남한에 가려고 하느냐. 북한에 가면 죄과에 따라서 용서해줄 거니까 북한에 가자.” 그래서 저희는 그때 안가겠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UN인권위원회로부터 난민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UN이라는 자체가 세계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함부로 북한에서도 저희들을 북송하지 못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 김은철

그런데 저희 뜻대로 안 됐습니다. 1999년 12월 31일날 중국을 거쳐가지고 중국북송되게 되었습니다. 북송될 당시에 저희는 밀산 변방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대로 북한에 갔다가는 다 죽는다고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밀산 변방대에서 7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주하고 30분만에 나머지는 다 잡혔고 저는 당시에 산속으로 갔기 때문에 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망갔을 때 저를 잡겠다고 북한에서 밀산까지 와 가지고 진짜 놔줬나, 도망했나 이렇게 현장 확인까지 하고 간 상태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래서 어떻게 되셨지요? 혼자만 도망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은철

예. 제가 도망을 해가지고 제가 러시아로 떠났던 연길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연길교회 목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TV에 너희들이 UN 난민판정까지 다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중국으로 왔냐고 그러면서 저를 잡겠다고 밀산 변방대에서 경찰관 40명이 연길교회까지 왔다가 제가 없으니까 다시 갔다고 하면서 너 연길교

회에 있으면 잡히니까 다른 데 가 있어달라고 해서 겨울이라 춥고 그래가지고 다시 북한에 아버님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다시 북한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까지 갔다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북한도 제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집 근처에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친구집에 숨어 있다가 아버님을 보고 다시 중국으로 올 생각으로 집근처까지 갔다가 집근처에서 보안요원들에게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잡혀가셨어요?

○ 김은철

그때 잡혀가지고 보안 안전부에 잡혔거든요. 안전부에서 한 일주일간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애는 안전부 담당이 아니고 보위부 담당이라 해가지고 보위부 구류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안전부와 보위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김은철

안전부는 경제범들을 다스리는 걸로 알고 있고, 보위부는 정치범들이나 이런 걸 다스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전부나 보위부의 법적 절차나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보위부에서 어떤 조사를 받으셨나요? 보위부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나요.

○ 김은철

보위부라는 데는 대접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잡혀서 부터는 완전히 개취급을 당하는데 제가 조사를 6개월 받았거든요. 진짜... 고문과 구타... 휴.....

○ 마이클 커비

치아가 어떻게 됐나요?

○ 김은철

맞아가지고 다 빠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방열판에 무릎을 꿇고 앉혀서 무릎이 다 까진 그런 상태였고요.

○ 마이클 커비

신체적으로도 크게 고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문을 당하셨지요. 어떤 고문을 당하셨나요.

○ 김은철

예를 들면 제대로 말 안 한다고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이런 걸 다 받았고요. 이렇게 말 씌드리면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집안에서 북한이라는 자체가 식량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집에서 면회 오는 걸 3개월에 한 번씩 오거든요. 올 때는 뭐 이렇게 아버님이 그때 혼자 살고 계셨는데 아들이 잡혔으니까 맛있는 걸 먹이려고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기름진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보위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제가 보는 앞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아버님이 사 오신 밥을 먹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배도 고팠지만 진짜 가슴 아픈 게 아버님께서 사 오신 걸…….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혹시 그런 받은 대접 때문에 보위부에서 받은 대접 때문에 몸에 상처나 흉터나 이런 것이 있으세요?

○ 김은철

예, 많습시다.

○ 마이클 커비

어떤 상처나 흉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나요.

○ 김은철

예, 무릎에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는데 무릎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고, 치아는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 해 주어서 치아는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뒤에 보면 (왼쪽 귀를 만지며) 귀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10년 지났는데도 상처가 지금도 있고요. 머리 각목에 맞아가지고 상처가 머리에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 고문이 보위부에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요덕 수용소로 갔을 때 그런 고문들이 이루어졌나요.

○ 김은철

보위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마이클 커비

보위부 시설이 어디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 김은철

예, 함경북도 무상군 무상읍이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거기가 혹시 태어난 곳인가요. 함경북도가 고향인가요.

○ 김은철

예, 태어난 곳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이런 고문, 이런 대우가 얼마나 지속됐지요?

○ 김은철

6개월 받았습시다.

○ 마이클 커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왜 본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때 알고 계셨나요.

○ 김은철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행을 시도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제는 죽었구나.' 해서 삶의 가치를 포기한 상태였고요. 북한 말하면 한국에 오면 무조건 죽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제가 알기로는요. 나중에 남한에 오시고 난 다음에 북한에 형제들에게 돈을 보내신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 김은철

예.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한 1~2년 정도는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에 있는 형제들 갑자기 돈을 주다 보니까 큰 영향을 미칠까봐 그 다음에는 북한에 돈을 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자체가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은행에 적금도 못하고 집에 쌀독이나 땅을 파서 숨겨놓고 쓰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회라는 자체가 인민만으로 형성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감시를 합니다. 저희 집에서 어느 날 쌀밥에 고기국 먹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사회안전부나 이런 데 신고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돈 있어도 함부로 못 쓰는 사회가 북한사회입니다.

○ 마이클 커비

형제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 김은철

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얼굴을 내비쳤고 했기 때문에 형님은 저의 일로 작년 12월에 처형당했고요. 그리고 둘째 누님은 형님이 처형당했으니까 그걸 못 이겨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누님이나 여동생이 있었나요?

○ 김은철

누님하고 형님만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누가 자살을 한 건가요.

○ 김은철

누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군요. 아까는 형이 자살을 한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형이 처형을 당했고 누님이 자살한 것이군요. 맞습니까?

○ 김은철

예.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인가요? 보위부 시설에서 일어난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이후에 보위부 시설에서 나와서 요덕 수용소로 간 것인가요.

○ 김은철

예.

○ 마이클 커비

요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 김은철

저는 그때 당시에 요덕 가기 전에 이불짐이나 옷짐 같은 걸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간다고 새벽에 했을 때 요덕으로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도착한 곳이 요덕 수용소 초대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요덕에 가가지고 그다음부터 요덕 수용소 시설이 시작됐습니다.

○ 마이클 커비

요덕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기억하실 수 있나요?

○ 김은철

예. 2000년 6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요덕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 김은철

처음에 요덕에 들어가면 외래자 숙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조사 받는 기간에 몸이 허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충 한,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몸을 좀 회복시킨 다음에 기본 중대에 나와서 노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외래자 숙소에서 좀 선배님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몸이 조금 괜찮은 상태라 바로 건설소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마이크 커비

돼지와 닭, 양계장 같은 것을 지은 것이 맞습니까?

○ 김은철

예, 맞습니다.

○ 마이크 커비

돼지라든지, 닭을 요덕에 있었을 때 먹은 적이 있나요?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드신 적이 있나요?

○ 김은철

닭고기는 못 먹었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월 15일이나 6월 16일 같은 때에 돼지고기 공급을 해주는데 배불리 못 먹고요. 한 사람 앞에 한두 점씩? 이렇게 국물에다가 줍니다.

○ 마이크 커비

요덕에서는 무엇을 먹고 생활하셨습니까? 얼마나 음식을 주었나요?

○ 김은철

요덕에 있을 때 음식량이 옥수수밥이었는데요. 그것이 죽처럼 한 것을 가다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한 사람 당 120g 정도, 그리고 염장 무, 국, 답니다.

○ 마이클 커비

그것이 하루 먹는 양이었나요? 120g이 하루에 먹는 양이었나요?

○ 김은철

아니요. 한 끼에 먹는 양인데요. 그것도 일을 못하거나 자기 정량을 못 채우면 절반씩 감시라는 것을 당하거든요.

○ 마이클 커비

그리고 하루에 세 끼를 드신 것인가요?

○ 김은철

네.

○ 마이클 커비

그것이 충분했나요? 배고픈 적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배가 고팠을 때는 무엇을 더 준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 김은철

항상 배고팠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물물교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것 같은 죄인끼리 옷 같은 것을 주고 밥 같은 것을 바꿔 먹고 이렇게 해서 배고픔을 좀 달래본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만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아까 말씀 하시기에는 군대에 못간 이유가 키가 작아서 그랬다고 했는데 형도 선생님처럼 키가 작았나요? 아니면 형은 키가 군대에 가기에 적당한 키였나요?

○ 김은철

형님은 제가 요덕 수용소에 있을 때 군 복무를 할 때입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이 왜 키가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은 키가 군대에 갈 만한 키였는데 가족력이 있나요? 가족들이 작았나요? 왜 선생님은 작았나요?

○ 김은철

저희는 아버님이 크고요. 어머님이 작았습니다.

○ 마이클 커비

어려서 못 먹거나 그래서 키가 작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은철

못 먹은 것도 많이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자체가 원래 고난의 행군의 시기라 매일 죽을 먹고 키가 큰다는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 마이클 커비

그 멸치국을 드셨나요?

○ 김은철

네?

○ 마이클 커비

멸치국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멸치국을 고난의 행군을 하실 때 드셨나요?

○ 김은철

멸치국이요?

○ 마이클 커비

요덕에 계실 때 다른 죄수들이 처벌을 받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 김은철

네, 많이 목격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어떠한 처벌들을 받았나요?

○ 김은철

예를 들면 배고파서 부하 놈들이 먹던 것을 개밥이라고 봤는데 그것을 훔쳐 먹다가 잡혀서 다시 그 안에서 구류장에 간 것도 봤고요. 독한 방입니다, 거기는. 거기는 들어가면 한 보름에서 한 일주일 있다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면 거의 살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 마이클 커비

왜 살아나을 확률이 적은 것인가요?

○ 김은철

그 안에 들어가면 우선 구타를 당하고 한 끼에 30g 정도 주니까, 또 독한 방이고 하니까 금방 사람이 허약해지거든요. 보통 한 50kg, 몸무게가 50kg짜리 들어갔다면 나올 때는 한 20kg.

○ 마이클 커비

선생님도 그러면 독방에 갇힌 적이 있나요?

○ 김은철

저는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요덕에 계실 때 공개처형을 보신 적이 있나요?

○ 김은철

네, 두 번 목격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왜 공개처형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었나요?

○ 김은철

네.

○ 마이클 커비

무슨 죄를 저질러서 공개처형을 당한 것이었나요?

○ 김은철

김오석이는 배고파서 감자밭에 감자를 훔쳐 먹으려고 하다가 도주기로 몰려가지고 사형 당했고요. 채광모는 풀베기 때 삼조 규율을 어기고 약초 같은 것을 캐먹으려고 하다가 또 도주기로 해가지고 공개처형 당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공개처형을 당할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나
요?

○ 김은철

제가 있던 구역에는 2개 중대가 있었습니다.
중대라고 말하면 소대 별로 5개 소대씩 나눠져
있는 것을 한 개 중대, 그다음에 1중대, 2중대,
이런 분열이 있는데 모든 죄인들이 다 죄수들 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 마이클 커비

공개처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 김은철

일단은 그 사람들이 잡히면 독한 방 같은 데
가서 일주일 있습니다. 그러면 다 죄수들 다 모
여 있는 상태에서 말뚝을 박아서 트럭에 싣고 오
는데요. 그때는 보면 진짜 다 죽은 사람을 공개
처형 하는 것이지요. 보면.

○ 마이클 커비

목을 매서 죽이나요, 아니면 총살을 당하나
요?

○ 김은철

총살당합니다. 다 허약하게 죽은 사람들에게
총탄 6발이랑 9발,

○ 마이클 커비

공개처형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김은철

공포심이지요. 나도 행동 하나 잘못하다가 그
렇게 도주기도라는 억울함을 당하면 나도 그렇게
죽겠구나, 하는 공포심.

○ 마이클 커비

보위부라든지 요덕에 계신 이유가 남한으로
도주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
에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나요?

○ 김은철

아니요. 없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남한에 도주를 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철

저는 솔직히 억울하지요. 왜냐하면 먹고 살려
고 가려고 했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6개월이라

는 자체를 몸과 마음을 상하게 했고 또 3년이라는 기간을 거기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는 요덕 안에서, 북한이라는 자체 내에서는 아무리 북한이 나쁘다고 해도 옆의 사람하고 표현을 못해요. 오직 자기만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 마이클 커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김은철

네, 북한이라는 자체가 한 개의 가족이지만 자기 아빠인데도 “아빠, 북한은 나쁜데 어디 가자.”는 말을 못합니다. 아빠도 또 “야, 우리 북한이 나쁜 사회인데 어디 가자.” 이런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족끼리도 못 믿고 사는 사회가 북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3년이나 계실 것이라고 미리 알았나요? 미리 이야기를 해 주었나요? 아니면 알지 못했나요?

○ 김은철

들어갈 때는 알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위부 정치,

○ 마이클 커비

그러면 3년 이후에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나요?

○ 김은철

처음에는 3년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들어갔을 당시에 거기가 신 구역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들어와서 나간 사람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지만 결국에는 3년 이후에 풀려나셨지요.

○ 김은철

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다시 반체제 요덕에서 다시 이후에 구금을 당하셨나요?

○ 김은철

아닙니다.

○ 마이클 커비

요덕에 있을 때, 보다 나은 인민이 되도록 교육을 받으셨나요?

○ 김은철

요덕에서 나올 때 서약서라는 것을 씁니다. 사회에 나가면 요덕이라는 데에 군부대 명칭을 쓰거든요. 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설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시 처리한다고 해서 사회에 나와도 내가 요덕에 있었다는 말을 못합니다.

○ 마이클 커비

한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 김은철

2006년도에 왔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일자리, 취직도 하시고 여기에서는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 김은철

네, 왜냐하면, 정부의 도움이 많이...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남한의 사람들로 부터 환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 김은철

처음에는 편견이 조금 심했습니다. 심해서 한 1, 2년은 잘 적응을 못했고 했는데 서로 어울리

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적응이 되어서 괜찮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 김은철

저는 제가 한국으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님을 사형하고 누님이 목매달아 죽고, 이런 사회가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끔 CI에 계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마이클 커비

김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정광일 선생님께서는 조금 북한에서 특권층에 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광일

예.

○ 마이클 커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광일

저는 1963년 5월 23일 중국 공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용정진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나가지고 1969년도에 저희 부모님이 북한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해서 제가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당시 제가 북한에 가게 된 이유는, 저희 가족이 북한으로 가게 된 이유는 당시 중국이 문화혁명이라는 그런 동란을 겪을 당시에 우리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북한으로 가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고, 1979년 4월 11일에 북한군에 입대해가지고 북한군 5군단 제74여단 8대대 2중대에서 근무했습니다. 10년간 군복무 마치고 제대해서 사회생활을 잠깐 하다가 조선노동당 824연락소 시도원으로 약 9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부터 각 일체 연락소라든가 군부대에서 자체적인 원천동원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외화벌이지요. 외화벌이를 위해서 무역회사를 많이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824연락소 봉수산무역회사 지도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근무를 하다가 1997년 12월에 제대를 하여 가지고 조선평양무역회사 청진 지사장으로 임명받아서 무역하게 되었습니다. 무역하면서 북한 당시 무역이 1990년대 초·중반에는 일본이라든가 여러 나라들과 러시아 중국하고 많이 했는데 그후부터는 경제봉쇄가 제재를 받아가지고 중국하고 기본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 마이클 커피

그러다가 그렇게 좋은 삶을 살았는데 왜 북한 사회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 정광일

당시는 불만을 갖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1998년부터 중국에 나와서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하는 과정에 중국사람들과 무역하면서 너무 마진이 없는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동태, 명태를 열린 것 말입니다. 동태 1톤을 가져다주면 중국사람이 톤당 300달러를 주더라고요. 300달러 그것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대치상품이라고 해서 옥수수로 지불하는데 거진 사료 비슷한 그런 걸 주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 명태를 소비를 어디서 하나 찾아보니까 한국사람한테 되는데 엄청난 이득을 보더라고요. 약 그때 톤당 1,000달러 이상을 받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제가 한국사람과 직접 거래했습니다. 당시 제가 북한에서 교육받기로 절대로 한국사람과 만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도 국가적인 생각도 했고 물론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람과 직접 거래하면서 장사하다 보니 한국사람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1999년 7월 22일 저녁 9시 경 함경북도 회령시 망양동에 있는 저의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 가지고 끌려간 곳이 저를 체포한 사람이 회령시 회령 곡산공장 보위부장 지영수고요. 끌려가서 보니까 다섯 명이 보위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지

키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저를 구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구타한 사람은 함북도 보위부 반탐서 지도원 홍종환이었고요. 그다음 회령시 보위부 수사과 지도원 박원수의 2명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폭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를 간첩이라는 걸 인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간첩이 아니라고 했는데 약 2주간 여러 가지 주로 각목으로 얻어맞고요. 거꾸로 매달리는 비둘기고문이라는 것도 당했지요. 그러는 과정에 제가 너무 간첩이 아니라고 한국사람하고 사실 제가 당시에,

○ 마이클 커비

아까 비둘기고문이라고 하셨나요? 그게 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정광일

비둘기고문이라는 건 두 팔을 뒤로 수갑으로 채워서 묶고 60cm 높이에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매달아 놓는 것이 비둘기고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둘기처럼 앞가슴이 나온다고 해서 비둘기고문입니다.

○ 마이클 커비

사진을 본 것 같은데, 일본식민지 시절에도 그런 고문이 있었던 것이지요.

○ 정광일

고문공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식민지 시절에 그런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북한에서 모든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 가둬놓고 수감시키는 곳이 구류장이라고 하는데 일명 유치장이지요. 유치장은 제가 알기로 일제시절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북한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보위부에서 받은 고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덕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아는데 요덕 수용소에서의 생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일

제가 유치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비둘기고문이 왜 힘든가 하면 글썽 들어와 가지고 각목으로 때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제가 무릎 관절을 수술했습니다. 여기 각목을 끼워서 앉히는 그런 고문도 당했지요.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를 발로 차는 고문도 당했는데 그런 고문은 꼭 사람이 필요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둘기고문 같은 경우는 매달아놓고 나가면 됩니다. 지킬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앉지도 서지도 못하니까 잠도 못 잡니다. 그렇게 3~4일씩 매달아 놓으면 사람이 나중에 지쳐서 바지에 대·소변 다보고 탈진을 합

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3주 정도 한국사람을 만난 적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사람 만난 걸 다 조사해가지고 미행을 했더라고요. 한국인 목사 납치했던 김동식, 아니 김동식 목사를 납치했던 박건춘을 비롯해서 저희 일거일동을 중국에서 다 미행하고 사진촬영까지 해서 제공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일 수 없어서 한국사람 만났다고는 했습니다. 만나서 무역거래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한국사람 만난 것 자체를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네가 말한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해서 더 가혹행위가 가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비둘기고문이었습니다. 그런 비둘기고문을 약 10개월간 받았습니다. 10개월 동안 받고 나니까 사실 제가 체포되기 전에 체중이 75kg였는데 10개월 후에 제가 체중이 36kg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간첩임무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포기를 했지요. 인정하니까 저는 요덕에,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사실 스파이 임무를 한국에서 받은 적은 있으세요?

○ 정광일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왜 그렇게 자백하신 거지요?

○ 정광일

하루하루 살아있는 거 자체가 고통이니 차라리 이럴 바에 죽든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 마이클 커비

자백을 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 정광일

자백을 하니까 사실 보위부에도 법적 절차, 형식적 절차겠지요. 검사라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국가보위부 검사라는 사람이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 사실 간첩이 아닌데 억울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간첩 아닙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간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저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고 바로 조사관이 들어와서 저를 폭행하고 거꾸로 매달아 놓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다 찼더라고요. 그 다음날 다시 검사가 와서 솔직히 말할 수 있냐고 해서 “맞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 버린 겁니다.

○ 마이클 커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손가락이 다 부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손가락은 괜찮나요?

○ 정광일

손가락은 부러지지 않았고요. 조사관들이 조사하다가 볼펜을 가지고 여기 끼워서 부러진 정도가 아니고 상처가 생겼습니다. 상처가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말이 수술이지 수술이 아니지요. 그런 걸 받았고 부러지지는 않았습니
다. 손가락에 볼펜을 끼고 비트는 그런 고문을 받은 적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요덕으로는 언제 가신 건가요. 자백하고 난 다음에 가셨나요.

○ 정광일

자백을 하고 나니까 한 열흘 됐습니다. 열흘 된 다음에 어디론가 끌고 가더라고요. 끌려가 보니까 그곳이 바로 요덕인데 그 날이 1900...아니 1900이 아닙니다. 2000년 4월 6일 날 제가 요덕으로 끌려갔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북한 정부가 이런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걸 부인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 정광일

한국에 와서 알고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2008년에 네덜란드 ICC에 가서 김정일을 고소하려고 갔을 때 북한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국제수사기관이 있다면 그래서 이 수사기관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기관에게 요덕 수용소의 위치를 설명해줄 수 있나요.

○ 정광일

예,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까지도요. 지금 현재 이게 위성사진인데, 제가 있었던 서립청 구역입니다.

○ 마이클 커비

지금 이 위성사진인데요. 그러면 커서로 지금 1번이라고 표시된 데 짚고 계시죠?

○ 정광일

예.

○ 마이클 커비

바로 거기에 요덕에 갔을 때 거기로 도착한

것인가요.

○ 정광일

아닙니다. 여기는 보위원들이 거처하는 분주소라는 집입니다. 처음 들어가 가지고 탈북, 아니 저 죄송합니다.

○ 마이클 커비

1번은 결국 집이네요.

○ 정광일

예.

○ 마이클 커비

그러면 4번은요.

○ 정광일

4번은 식당입니다.

○ 마이클 커비

건물도 알아 보시겠나요.

○ 정광일

예, 다 압니다. 제가 3년간 여기서 살았는데요 다 알아보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이 위성사진을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는 건가요.

○ 정광일

예.

○ 마이클 커비

이게 15번 관리소라고 알려졌네요.

○ 정광일

제가 2000년 4월 6일에 도착해서 첫 외래자라고 하면요, 일명 말하는 신입반이라고 하는데 신입반이라면 처음 들어온 사람을 거기에 어느 정도 요덕생활을 습득시키는 곳이 외래자 숙소라고 했습니다. 외래자합숙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놓고 하면서 보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나면 예전에는 제가 있었던 서립청 구역 자체가 혁명화구역이었습니다. 혁명화구역이란 단기적으로 정치범들을 수감시켜서 단련시키는 곳이 혁명화구역입니다. 이 혁명화구역 자체가 요덕이 본래 함경남도 요덕군 구읍리입니다, 지명으로 따지면, 구읍리의 중심부분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숙리라고요. 중심부분에 있던 걸 한국에 와 있는 안혁 씨나 강철환 씨가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다 보니까 위치를 옮겨버린 거지요. 거기서 위치를 옮겨가지고 제가 가니까 건물 자체도 새 건물이고 아주 신설이 된 건물이었습니다. 처음 그렇게 돼가지고 대숙리를 해산시키고 구읍리로 옮긴

상태에서 제가 수감됐던 것이지요.

○ 마이클 커비

거기 계실 때 김동식 목사님을 만나셨나요?

○ 정광일

김동식 목사는 거기서 만난 게 아니고 제가 회령에서 잡혔는데요. 회령시 보위부 지하 감방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전에도 김 목사님을 아셨나요?

○ 정광일

몰랐지요. 저는 그때 당시 목사님인지 모르지요. 일단은 목발을 짚고 있는 한국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북한 사투리가 있는데 아바이라고 하거든요. 대체로 좀 늙은 분들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바이라고 하는데 저희 감방에 안 들어왔고 옆 감방에 들어왔는데 말씨가 한국말이 되어가지고 “아바이 어디에서 왔어?” 그러니까 “나 한국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서 그다음 김철이라고 납치할 때 같이 협조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와서 김동식 목사가 저 사람이 목사며 어떻게 납치되었다는 것을 사실대로 그때 저하고 감방에 같이 있으면서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서 알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알아보니

까 김동식 목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김동식 목사님은 무엇을 잘못해서 잡혀온 것으로 알고 계셨어요?

○ 정광일

뭘 잘못된 것으로 잡힌 것은 잘 모르겠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일단은 김동식 목사 납치가담한 자들의 판결문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김동식 목사가 탈북자들을 도왔다고 해서 납치한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가해자가 유명아라는 조선족인데요. 이 사람이 같이 북한 보위부 납치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김동식 목사를 납치한 다음 자기는 중국 공항으로 피해가지고 한국에 잠입을 했다가 지금 현재 체포되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0년형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출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실제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사람들이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나요? 실제로 어떤 일을 했지요?

○ 정광일

실제로 제가 나중에 알아봤는데요. 당시 저는

김 목사에 대해서 잘 모르구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탈북자들을 몽골로 탈출시켜서 한국으로 오는 일을 좀 도와주었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김 목사님이 언제 납치되었는지, 대략 언제였습니까? 선생님이 아시기에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광일

여기 판결문에 보면 2000년...

○ 마이클 커비

이 판결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 정광일

이 판결문은 김동식 목사를 납치할 때 가담했던 자가 지금 한국에 잠입을 한 자가 체포되어서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고 본래 이전부터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체포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술한 자료로 기초해서 만든 판결문입니다.

○ 마이클 커비

이 판결문은 대한민국의 재판의 판결문이 맞

습니까?

○ 정광일

네,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납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아십니까?

○ 정광일

김동식 목사는 한 명뿐이 아니고요. 수많은, 약 16명을 납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치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김 목사님께서 어떻게 납치가 되었나요? 납치가 되어서 복송되었습니까?

○ 정광일

잠깐만요. 2000년 1월 16일 14시경에 김동식 목사가 예립 불고기라는 연길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김철, 아까 제가 제공을 했던 김철 및 그다음 탈북자, 대기하고 있던 탈북자 일행과 인사를 하고 헤어져 식당 앞에 대기하고 있던 함북, 택시기사 조수석에 김동식 목사가 중국 택시를 탔는데 여자 택시를 탔는데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박건춘과, 제가 이 판결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박건춘, 그다음에 김성삼, 남수, 박문일, 채용철 등이 달려들어서 제압을 하고, 김동식 목사를 제압을 하고 택시에서 다시 봉고차로 끌고 와서 택시를 돌려보낸 다음 봉고차로 이동을 해가지고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남호일대를 통해서 북송을 하려고 하였으나 낮시가 되어서 북송을 못하고, 14시이니까 낮 2시 정도니까 북송을 못하고 15시 경에 다시 김동식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16시 30분경, 당일 16시 30분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 남호일대에 도착해가지고 수갑을 채운 채로 김동식 목사, 김성삼과 김남수는 김동수 목사 양 팔을 끼고 부축한 채 두만을 건너서 북한 측에 대기하고 있던 회령 옥산공장 보위부장 지영수와 김성국에게 김동식 목사를 인계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마이클 커비

김 목사님의 죄목은 그러면 탈북 할 수 있도록 그 연락선을, 연락체계를 만든 것이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탈북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까?

○ 정광일

아마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탈북자들이 일단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든 숙식을 보장해주고 한국으로 가려는 의향이 있는 분들은 몽골로 해서 보내 넣도록 해서 보내드리

고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는 아니었지요? 선생님은 김 목사님을 통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요?

○ 정광일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2003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은 어떻게 탈북 하셨습니까?

○ 정광일

제가 수용소에서 그렇게 잡혀가가지고 수용소 생활을 3년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김은철 씨 하고도 같이 있었습니다. 수용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3년 간 수감생활을 했고 나와 보니까 사실 제가 나올 때까지도 사회가 어떻게 되었고 제가 제 가족이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나와서 제가 살던 곳인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 구역 청남동에 있는 저희 집에 가니까 저희 집이 없었어요. 집은 다 그때 당시 몰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한 명도 없고 저희 작은 딸 둘인데 자녀가 둘이 있

습니다. 딸 들인데 작은 딸 애만 지금 처갓집에 있더라고요. 너무 내가 북한 땅에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래도 한 때는 북한 당국을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땅에서 못 살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서 수용소에서 나와서 12일 만에 탈북을 했습니다. 12일 만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와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4개 나라를 거쳐서 약 오는 기간이 1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에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지나고 보면 선생님께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교훈이 있었습니까?

○ 정광일

어떤 측면에서요?

○ 마이클 커비

현재 상태로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있다면 왜 가고 싶으십니까?

○ 정광일

아니요. 저는 지금 현재도 전혀 제가 북한을 떠날 때도 그랬습니다. 다시는 저 땅을 밟지 않

겠다고, 다시는 저 땅을, 글썄요. 북한 정권이 바뀌거나, 현재 지금 북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때는 내가 같은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전혀 같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환멸을 느끼고 돌아선 땅인데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본질적으로 왜 환멸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광일

저도 한 때는 북한 정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10년이라는 군복무도 했고요. 그다음 노동당 연락소에서 제가 약 9년 간 또 했고요. 무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작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2008년 8월 24일을 맞으면서 8월 24일이면 824날이라고 우리 연락소가 창립된 날인데요. 그 날을 맞으면서 약 우리가 한 것이 농수산 무역회사에서 70만 달러를 벌어들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북한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지위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렇게 간첩으로 몰려서 수용소까지 갔다 오니까, 수용소 생활이라는 것이 제가 은철 씨도 같이 있었지만 정말 수용소에 가서도 별의 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아까 은철 씨가 이야기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요. 남을 동정을 했다고 해서 너무 맞아

가지고 보위원한테 너무 맞아가지고 약 1주일 동안 일어서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동정을 했다고 해서. 남을 동정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아예 치가 떨려가지고 이제는 정말 북한에서 천만 금을 준다고 해도 저는 안 갈 것입니다.

○ 마이클 커피

대한민국에 오셨을 때 친절한 환영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탈북자라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대우를 받으셨나요.

○ 정광일

물론 사회적인 거 나름으로 차별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환대를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살려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걸 쉽게 받아들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별적으로 별로 느껴 본 적도 없어요.

○ 마이클 커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 마르주키 다루스만

김 선생님과 정 선생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수용소에서 풀려 나오셨고 사회로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까?

○ 정광일

예.

○ 마르주키 다루스만

사회로 돌아가셨을 때 이전에 알던 사람들과 만나셨을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두 분 선생님께서 뭔가 달라졌다, 사람이 변한 것 같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도 많은 일을 당했을 텐데 그것만 보아도 수용소에 있다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정광일

사실 제가 보위부에 간첩으로 몰렸다는 건 제가 살던 구역에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수용소에 갔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용소에 가기 전에 가까웠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가까운 사람들 많았는데 북한에서는 고위층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한국으로 말하면 경찰서장이겠지요. 안전부장. 그다음 당일꾼들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무역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았는데 제가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 찾으니 저를 만나기 꺼려하더라고요.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북한에 대해서 이 사람들 하고 진짜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리고 김 선생님.

○ 김은철

저는 나오니까 깜짝 놀라지요. 왜냐하면 보위부에 잡혀가지고 간첩으로 죽었다고 마을에 소문이 돌았는데 나와 가지고, 요덕 갔다는 소리는 못하고 군부대 명칭을 삽니다. 몇 군부대에 노무자로 3년 있다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말했고요. 일단 저희 마을에서는 몰랐고, 보위부나 안전부에서는 알지요. 그래 가지고 감시를 하는 거지요. 그다음부터 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마을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했는데 군부대에 노무자로 있던 것으로 마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요덕에서 나왔을 때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통제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 알게 된 것인가요.

○ 김은철

요덕에서 나오면 일단 요덕에서 담당 보위원이 제가 살던 고향 보위부까지 같이 이송을 하거든요. 와가지고 보위부에서 다시 문건 접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다시 서약서를 쓰고 사회에 나오는데 그다음부터는 직장도 다시 배치 받아야 되고 전에 내가 노동자로 있으면서 관찮은 자리에 있었는데 자리배치하면서 농촌시골로 보내진 걸로 처리하더라고요.

○ 정광일

수용소에서는 수용소에 있는 보위원들 자체가 수감자를 내보낼 권한 자체가 없고요. 내가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을 때는 나오기 두 달 전부터 알 수 있습니다. 2개월 전에 국가보위국 7국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를 면담을 합니다. 면담내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2개월 후에 나가는데 사회 나가서 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잘하겠다고 해야겠지요. “잘하겠습니다.” 하면 “정말 잘해야 돼.”,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너 2개월 후에 너를 내보내겠다.” 그때부터 그렇게 면담을 한 다음부터는 잠도 안 옵니다, 정말. 그거 기다려지지요. 2개월이 지나기를. 2개월이 지나면 정말 나갑니다. 내가 나간다는 걸 2개월 전부터 알게 되는 거지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김 선생님의 경우에도 그랬습니까?

○ 김은철

일단 뭐 안에서 담화하는 사람도 있고 담화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0일 전 10일 전부터 알았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풀려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주나요. 좀 더 체중도 붙고 옷도 잘 입혀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건가요.

○ 정광일

돌아갈 수 있는 준비라고는 특별히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따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그래도 수용소에서 나올만한 정도면 육체적으로 살만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거기서 버텨낸 사람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살만한 사람이고 사회 내 봐도 사회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따로 준비할 건 없고요. 옷 같은 거 입고 나올 수 있는 옷 같은 거는 수용소에서는 죽고 들어오고 반복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나가는 사람한테 배려해 가지고 내 옷을 입고가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 선생님. 75kg이었는데 그 다음에 36kg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 정광일

제가 체포되기 전에 중국에 있을 때 대체로 보면 사우나에서 체중계가 있어서 체중 떠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75kg라는 걸 알았고 체포된 다음에 수용소에 들어갈 때 체중을 떠 봅니다. 수용소에 들어가서요. 몇kg 나가는가 떠 보는

데 그때 떠 보니까 36kg더라고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데요. 정말 한국에 오시고 싶었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떤 정보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요?

○ 김은철

북한에 있었을 때는 체제라는 게 어렸을 때 교육이 남조선은 못살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중국까지 와 가지고 교회에 있으면서 한국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한국드라마도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사회를 조금씩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오게 된 동기도 한국분의 도움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알게 되었고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쭙려고 하는데요. 가족들 간에도 믿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로 고발도 합니까?

○ 김은철

고발은 안 하는데요. 어렸을 때 배운 게 북한 김일성 욕 하면 안 되고, 명절 때 선물 받으면

김정일, 김일성 초상에 인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표현은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김정일이 나쁘다 하면 뺨을 얻어 맞을 정도로 그렇게 김정일, 김일성을 많이 선호했다고 생각했지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가정이 좀 힘들어지고 하다 보면 어디 가서 옥수수 훔쳐도 먹고 하는데 그런 건 서로 부자간에 “아빠 오늘 먹을 게 없으니까 어느 밭에 가서 옥수수 훔쳐 먹자.” 그런 건 경제적으로는 서로 대화가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절대 굶어죽어도 그런 말은 못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께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오시고 난 후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에 다시 돌아가게 된 건데,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 사람들을 새로 만났을 때 ‘아, 저 사람은 수용소에 있었겠구나, ‘저 사람은 수용소에 없었겠구나’ 알아보실 수 있었나요?

○ 정광일

전혀 그렇게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별로 티가 안 나요. 수용소에서 나왔다는 티가 안 납니다. 일단은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저 사람이 국가보위부에 잡혔다, 예심을 받았다, 어디론가 실려 갔다 하니까 추측이 난무하지요. 저 사람 수용소 갔다 왔구나 생각하지 외형상 봤을 때는 완전히

허약한 상태에서 피골이 상접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수용소 갔다 온 사람 티가 안 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 선생님,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간수라든지 고문을 했던 사람들 다 기억하나요.

○ 정광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름도 기억하세요?

○ 정광일

이름부터 시작해서 당시 나이까지도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몇 살 정도 되었다는 것까지.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적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름하고 나이 등을, 총 몇 명 있었지요?

○ 정광일

지금 제가 저를 체포할 때 체포를 하던 사람은 지금 현재 사망되었지요. 지영수라고 사망되었습니다. 당시 지영수가 54살, 54세가 되었고 흥

종환이는 저하고 나이 같았습니다. 63년생이었어요. 홍종환, 그다음에 박원수는 69년생이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수용소에 있던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우리를 관리하던 관리보위원들은 성만 알았지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더라고요. 성은 대체로 대부분 우리가 담당보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영남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업반을 담당했던 보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보위원들은 성이 차가고 양가고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고요.

○ 마루즈키 다루스만

얼굴은 기억하시죠?

○ 정광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솔직히 제가 북한 인권 관련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가해자 자료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저희 단체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도 왔는데요. 북한에서 쓰여지고 있는 체포영장도 가져 왔습니다. 체포영장에 보시면 여기에 사람을 체포해놓고 날짜를 안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역시 그렇게 체포해서 체포영장에 날짜도 안 써놓고 내가 유죄가 아니고 진술을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힘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 그때 바로 날짜는 쓰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

체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체포영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 마루주키 다루스만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떠세요. 기억나는 분 있나요?

○ 김은철

저도 옆에 있는 정광일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냥 그 안에서 차 선생님, 양 선생님, 성 밖에 모르고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 마루주키 다루스만

그래도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한국 정부요, 대한민국 정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나요?

○ 정광일

없습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회의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너무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저희 단체부터 시작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여러 차례 촉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로이신가요?

○ **김은철**

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네, 고맙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또 인민반이라든지 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북한사회는 어떻게 보면 서로를 계속 의심하고 이려고 살고 있나요?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결론으로 북한 사회에서는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이런 상태에서 산다고 봐도 될까요?

○ **정광일**

체제 자체가 그렇고요. 정확히 조직생활이라는 것을, 북한은 조직생활을 7살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조직생활을 시키고 있는데 제일 처음 기초단계로는 남을 감시하거나 그것을 방법적인 것을 배워두는 것 자체, 강요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겠지요. 매주 마다 한 주에 한 번씩 토요일이면 무조건 주간생활 총괄하는 것 합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라는 것도 맞지만 나중에 호상비판이라고 남을 비판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판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공격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자기가 한 주가 되면 또 누군가의 잘못을 끄집어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되니까 몸에 배지요. 7살부터, 조직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인민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북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도 솔직히 거사를 잘해야 됩니다. 만약 혹시 조금 먹다가, 고기를 조금 먹다가 혹시 비계 같은 것이 음식물쓰레기에 나가게 되면 저 집은 너무 잘 살아서 어디에서 돈이 생겨서 고기를 먹나, 이런 식으로 신고가 되어가지고 그다음 감시 붙은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지금 한국에 온 탈북자들 가족들이 북한에서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가지고 갑자기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나머지 혹시 돼지를 사서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바로 신고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가족들이 잡혀가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감시체계가 어릴 적부터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그러면 한국에서 북한으로 어떻게 돈을 보내지요? 어떤 경로로 돈을 보낼 수 있지요?

○ 정광일

사실 2004년, 제가 왔을 때는 돈을 보내기 엄청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지금은 돈을 보내는 것이, 송금하는 속도가 솔직히 15분이면 북한에 바로 송금이 됩니다. 15분이면 송금이 되는데 송금되는 절차가 물론 불법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조선족들이 자기 연변에 있는 중국 고향에 돈을 보내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라는 것이 무엇이나면 불법 환치기들이 있는데 그 환치기들을 통해서 환치기 계좌에다가 내가 돈을 100만 원 넣었다 하면 중국에 있는 브로커이지요.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북한에 살고 있는 화교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통화를 해서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수수료 30%를 뺍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30만 원을 떼고 70만 원을 주는 것이지요. 주라고 하면 통화가 되어가지고 전화통화, 확인전화까지 되면 북한에 있는 화교가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한테 “너희 형한테서 1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깐 30만 원을 떼고 70만 원을 준다.” 이렇게 넘겨받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약, 빨라서 15분이면 송금이 되고요. 늦게 해서는 30분이면 송금이 됩니다. 확인 전화까지 하면 한 시간 내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그러면 북한 정권이 조금 느슨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정광일

느슨해진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송금 브로커들을 엄단을 하는데요. 엄청 단속을 해가지고 브로커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북한 강원도 원산에 살고 있는 화교가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돈을 날랐다고 해가지고 북한 국가법에 가서 고문을 받던 중 정신병자가 되어서 지금 나온 여자 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몰래 비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예, 고맙습니다.

○ 마이클 커비

2가지 질문만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어느 조직에 속해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 정광일

저희 단체는 한글로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이고요. 영어로는 Free nkgulag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지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고요. 저희 단체 멤버들 단체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되었다거나 관련된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단원 수만 제가 만나 뵈 적도 생각나고요. 여러 차례 북한에 현재 민주화가 실현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가 실현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범 수용소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누가 정치범 되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범이 되면 정말 그 집 자식까지도 그 어떤 발전이 없습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제가 한국에 온 중요한 원인은 저한테 딸이 2명 있습니다. 개네가 북한에서 절대로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간첩이었고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국 온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한국에 오려고 했던 두 번째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많은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못 봐서 그렇지. 그리고 UN도 많이 찾아다녔고요. 그다음 2008년도에는 ICC에 찾아가서 김정일을 재소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 저러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성과는 없습니다. 일단은요. 저희 단체는 일단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 마이클 커비

북한 당국은 이런 정치범 수용소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 정광일

예.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이런 정치 수용소를 위성사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정광일

네. 정확히 위성사진으로 나온 제가 있던 함경남도 요덕군 구읍리 서림천이라는 어떤 구역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1번이 분조소라고 하는 보위원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고요.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보위원들이 있는 곳이고 2번이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에 사과가 달리고 과일이 달리는, 사과나무하고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한 알도 수감자들이 다칠 수 없습니다. 과일은 훔쳐 먹게 되면 바로 독한 방으로 끌려가고요.

○ 정광일

3번이 울타리를 아마 한 것 같은데 전기철조망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들어 있는 수감자들이 먹고 잘 수 있는 구역을 철조망을 쳤는데 높이가 2미터 되는 높이에 위에

는 전기철조망을 치고 실제로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흐르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비가 많이 와서 접지되면 불꽃이 일거든요. 비가 많이 오거나 혹시 벌레들이 접근하면 불꽃이 이는 걸 보고 전기 투입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 4번이 식당입니다. 여기 두 개 작업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명 중대라고 하는데 1중대, 2중대로 이렇게 2개 작업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4번이 2중대 식당이고요. 그 다음 5번이 1중대 침실입니다. 5번이 1중대 침실, 6번이 1중대 식당, 7번이 회관, 회관이라 하면 모여 있는 회의를 하는 사상투쟁이라는 회의를 하는 장소이고요. 8번이 화장실,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8번이 화장실이고, 9번이 병원입니다. 10번이 농기구 창고,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도구를 넣는 창고고요. 11번이 관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관리위원회가 뛰냐하면 수감자들한테서 관리위원장을 뽑아서 책임적인 위치에 놓고 이 사람이 모든 수감자를 관리하는 관리위원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쳐하는 데가 관리원이고요. 12번이 사물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14번이 돼지를 기르는 돈사고요. 15번이 염소를 키우는 염소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수감자들이 자는 데는 어디인가요.

○ 정광일

5번하고 3번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저희가 알만한 수용소와 가장 가까운 유명한 도시가 있나요.

○ 정광일

유명한 도시가 제일 가까운 곳이 아마 수용소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함흥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용소에서 나와 가지고 함흥까지 약... 워낙 길이 안 좋으니까요. 한 6시간 동안 함흥까지 갔습니다. 현재 함경남도에 소속되어 있고요. 요덕군이요.

○ 마이클 커비

만약에 북한이 저희가 들어가는 걸 허락하면 그때 들어가는 팀에 아주 상세하게 수용소 찾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정광일

예,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함흥은 걸어가신 건가요? 어떻게 가셨지요?

○ 정광일

함흥까지요? 아니지요.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

면요.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일반 교도소와 틀린 게 뭐냐 하면 교도소는 그냥 사회에 출소증 만들어서 배출하면 끝인데 수용소는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비밀보장 때문에 제가 나올 때도 식량이동증지라고 해서 증지를 주는데 그 증지에 조선인민군 4공호 군부대 노무자라고 돼 있어서 솔직히 사회사람들은 제가 취직하는 직장에서는 내가 군부대 노무자로 있다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알 수 있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수용소 왔다는 걸 모르지요. 그렇다 보니까 서약서를 쓰고 나오게 되면 담당보위원이라고 해서 한 명의 보위원이 나를 직접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차편을 제공합니다. 출소해서 나올 때는 차를 제공해 줍니다. 물론 승용차는 아니고요. 화물 트럭에 짐차에 타고 나오는데 나와서 함흥까지는 차로,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차타고 함흥까지 가는데 6시간 걸리셨다는 얘기인가요.

○ 정광일

예, 6시간 걸렸습니다.

○ 마이클 커비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무국 쪽에도 말씀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UN 측에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꼭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서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5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음번 순서로 김영훈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2:12 중지)

(12:25 재개)

○ 마이클 커비

이제 공청회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박사님은 지금 KDI의 수석연구원이시고 북한의 식량 전문가이십니다. 한국 한반도의 식량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특히 농업부분에 전문가이십니다. 김 박사님, 오늘 이처럼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서는 오늘 진실만을 말씀해 주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 좀.

○ 마이클 커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시고 본 다음에 저희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박사님께서서는 저희에게 북한 내 농업이 어떻게 실패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인민들에

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완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 김영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예상했던 것은 저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고 요청 받았는데 막상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증언석에 앉았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이 증언에 합당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북한의 농업, 그리고 식량수급사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북한농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제가 오늘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서 몇 몇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료들은 주로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묶어봤는데 사실 신뢰도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지는 아직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들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 드릴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학술적인 연구자료입니다. 증언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4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농업부분의 전략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다음에 식량

사정은 어떤지, 세 번째로는 식량과 관련해서 인권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새로운 정부 그러니까 김정은 정부지요. 김정은 정부와 농업부문 정책은 어떻게 앞으로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4년도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지요. 사망하면서 김일성 주석이 유산을 남겼는데 경제적인 분야에서 후계자에게 남긴 유산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경제적인 후퇴입니다. 긴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침체상황을 유산으로 남겼지요. 두 번째로는 농업부문인데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비교대상은 한국 그러니까 남한으로 잡으면 농업부분 생산성이 55% 내지 6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서 1998년까지 심각한 식량위기상황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UNDP에서 발간한 Agriculture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 Program이라는 1998년의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 후에 김정일 정부가 들어섰는데 김정일 정부는 농업부문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 전략 하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목표는 무엇이나면 농업생산을 향상시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농업부문을 회생시키는 것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농업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것입니다. 내부적

으로는 개혁적인 조치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요.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시스템개혁조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협동농장 내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서브워크 팀 시스템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2년에 7월 1일 발표된 것인데 경제관리개선조치라고 해서 경제구조를 변경하는 그러한 개혁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한 내부적으로 개혁적 조치, 제도개선을 취했고 외부적으로는 자본이 부족하니 북한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힘들니까 외부적으로는 자본을 조달받기 위해서 국제적인 지원을 여러번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UNDP를 통해서 농업회생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원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방면에 걸쳐서 국제적인 지원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내부개혁조치도 잘 작동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일의 농업정책 증산을 위한 농업정책은 결국 성공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 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곡물의 생산성을 2000년대 말 기준으로 비교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보면 제일 아래에 오른쪽 보면 남한을 기준으로 잠재적 생산성을 추정했을 때 북한의 현재 생산능력이라는 것이 55%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능력은 100%인데 그 중에 발휘하는 것은 55%

수준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이 말해 주듯이 여러 가지 농업정책을 그동안 추진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요인이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Collective System, 집단적 영농에서 오는 비효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도 개혁조치,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자본의 문제입니다. 농업생산에 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가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화학비료, 그다음에 농기계, 그리고 여러 가지 농약 제초제, 그다음에 좋은 종자,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랜 기간의 경제 침체로 이러한 생산요소, 농업생산요소들이 잘 공급되지 않았습시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생산기반의 문제입니다. 농업생산기반의 대표적인 것이 수리시설입니다. 수리시설, 그다음에 양수장, 그다음에 댐, 저수지, 이러한 여러 가지 농업, 또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이러한 여러 가지 농업생산기반이 계속 유지되고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 농업부문에 이러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시다. 계속 피폐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업기반이 피폐화해서 이러한 농업의 저장성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산림의 황폐화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온대 몬순지역에 속해있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

호우와 태풍이 정기적으로 불어 닥칩니다. 이때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이라든지 또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그 피해가 농업부문에 그대로 닥치게 됩니다. 산림기반, 산림이 매우 황폐해있기 때문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불었을 때 그대로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농업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3가지 때문에 북한이 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전략, 그다음에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성이 굉장히 낮게 된 그러한 요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0년부터 2007년도에 북한의 식량수급상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제사회가 매우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남한도 크게 담당을 했고요. 2000년에서 2007년 그 사이를 보면 총 776만 톤 정도 총 북한에 식량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화학비료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농업생산도 조금 향상되었고 그다음에 식량도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식량 상황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지요. 왜 그러냐면 모든 지원이 국제사회의 모든 지원이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북한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표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 아래에 있는 부족, 이것은 식량입니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물론 최소 소유량 기준이지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최소 소유량 기준으로 조금 식량이 오히려 남는 기간이었지요. 그런데 2008년부터는 다시 부족해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지원,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다시 극복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은 글씨와 파란 글씨는 좀 소스가 다릅니다. 검은 글씨는 Import 해서 검은 글씨로 표시되어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FAO자료이고요. 그다음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Import 파란색 글씨는 주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거의 감소되었기 때문에 주로 상업적인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량적으로 북한의 식량상황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시장의 가격, 그러니까 시장에서 식량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보면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을 간접적으로나마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표에 보면 선이 3개 있지요. 제일 아래 선이 북한 원화로 표시된 쌀 1kg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검은 선이 북한 시장의 환율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짙은 선이 달러화로 표시된 북한 시장의 쌀 가격입니다. 그 북한을 원화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3년 동안에 식량 가격이 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북한의 식

량 사정이 3년 동안에 크게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달러화로 환율이 같이 올랐기 때문에 북한의 원화가 시장에 많이 배출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 표시로 바꾸어서 살펴봐야 북한 시장에서 식량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짙은 선을 보면 그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뒤의 그림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위에 있는 선은, 파란 선은 중국의 쌀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3년 간 중국의 쌀 가격 움직임이고 아래 있는 붉은 선은 북한의 쌀 가격 움직임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기적으로 볼 때 3년 간 판단해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쌀 가격의 움직임과 북한의 쌀 가격의 움직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최근 3년간은 북한의 쌀 가격은 북한의 작황, 아니면 북한의 해외에서의 식량조달상황,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북한의 시장에서의 쌀 가격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결국 국제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 3년 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3년 간 나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그러면 최근 3년 간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빠지지 않았다는 말이 과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표로 판단을 한 번 해보지요. 제일 아래 있는 선이 2011년도에 북한 쌀 가격의 움직임이고 그다음이 2012년도, 그다음 위에 있는 빨간 선이 2012년도,

파란 선이 2012년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같은 해에서 쌀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크게 움직입니다. 가장 심한 것을 보면 60%까지, 쌀 가격이 시장에서 낮은 때와 높은 때의 가격 차이가 60%까지 움직입니다. 대개 이 국가의 경우 5% 내외, 그러니까 식량이 수확기와 단경기라고 그러지요. 식량 수확이 안 되는, 식량이 밭이나 논에 있을 때 그것을 단경기라고 하는데 그때의 가격차가 대개의 경우 5% 내에서 움직입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량 수급이 안정되어있는 국가들은 거의 연내에는 소비자 식량 가격이 거의 연내에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움직이는데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60%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최근 3년 간 더 나빠지지 않았어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이 현상은 2010년부터 2011년, 2013년을 계속 겪어오면서 계속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매우 어려운 사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식량 사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FAO와 WFP가 발표를 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북한 당국이 하루에 1인 당 배급하려고 하는 목표치가 식량 약 213kg, 하루가 아니라 한 해입니다. 1년에 213kg를 배급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목표량을 충분히 배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1년에

136~70kg만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213kg, 1년에 1인당 213kg라는 것은 결국 1인당 필요한 최소 열량을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배급하는 것을 보면 실제 사람이 필요한 열량의 52~27%만 배급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식량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되겠지요.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식량 부족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텃밭을 조성을 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개인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거기에서 키워서 식량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활동을 통해서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는 것을 들 수 있고요. 이것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 하지요. 그다음에 도시 지역 주민들 역시 농촌에 있는 친구라든지, 친척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의 경우에는 밖에서 나가서 산야초를 수집을 해서 채집을 해서 또 부족한 식량을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것은 식량 식품을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것이지요.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으로 견디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은 정부가 배급을 하지 않으면 시장 활동을 통해서 식량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식량을 취득하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은 식량부족에 크게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WFP와 FAO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식량취약계층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데 2011년, 2012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총 358만 명 정도의 취약계층이 북한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그렇다면 새로운 정권, 김정은 정권이지요. 김정은 정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농업정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 그다음에 농업부문의 성장을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본이 있어야 되고 농업에 투입을 해야 되니까, 자본이 있어야 되고 한쪽에서는 시스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일 정권에서는 이것이 실패를 했지요. 자본도 외부로부터 충분히 조달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개혁적 조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어떤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김정일 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에서도 역시 자본은 부족할 것이며, 충분한 개혁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침체와 Food Crisis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김정은 정권 하에서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새로운 농업 정책이 자세한 구체적인 농업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렇지만 새로운 전략을 어떻게 추구하는가, 그 방향성은 지금 나왔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2012년 6월 28일에 하나의 문건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6.28 방침이라고 일컫습니다. 6.28 방침이 농업 부문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6.28 방침의 키포인트를 보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농업생산의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정부와 협동농장이 수확물을 7대 3으로 나누어 갖는다.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서브워크 팀, 그러니까 협동농장은 수개의 작업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작업반은 다시 몇 개의 서브워크 팀, 그러니까 작업분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작업분조의 규모를 줄여서 거의 개별영농화 하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이 3가지가 핵심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내용 각각을 분석을 해보면 비판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농업생산의 코스트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그냥 사회주의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혁적 조치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다면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옛날부터 사회주의 경제하에서 보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수매해야 하는데 그동안 보면 정부가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못했다는 것을 거꾸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 비용을 옛날에는 물량 물자로 부담했는데 여기 6.28 방침에 보면 시장가격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대단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태에서는 시장가격으로 생산요소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격으로 부담할 때

시장에서는 그 생산요소 가격이 다시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물자로 부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정부는 그럴 여력이 없지요. 그 다음에 서브워크 팀의 크기를 줄이겠다는. 과거에는 10내지 20가구가 하나의 작업분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2, 3가구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1996년부터 계속 시시때때로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북한의 농업부문에 종사하던 탈북자들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는데 그러한 작업분조의 크기가 줄었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은 서브워크 팀 규모를 줄여서 개별영농화하겠다는 개혁적인 조치들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6.28방침이 가지고 있는 개혁적 조치는 사실상의 개혁적 조치가 아니라 현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은 재정충당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정은 정권하에서 새로운 농업전략, 농업정책이 어떠한 기회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경제에서 평등을 포기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개혁을 단행할 때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이 붕괴하는 위험을 김정은 정권이 감수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

에 경제에서의 평등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개혁을 추진할 때 필수적으로 닥치는 위험 체제의 위험 그것도 감수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북한경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북한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경제가 단기적으로 문제가 크게 확대되고 나 빠질 것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동부지역의 나진-선봉지역, 북서부지역의 신의주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과의 경제협력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북한에 지원되는 파이프라인이 있었지만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당분간 이 상황이 계속,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는 않은 이 상황이 계속되고 약간 단기적으로는 또 북한식량사정이라든지 경제사정이 약간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고맙습니다, 박사님. 지금 하시는 증언이 직접 인권침해 경험을 하신 분들의 증언보다 절대로 덜 중요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님께서 다루시는 주제는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박사님의 증언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분 후에 떠나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이신데 농촌경제연구소에서 얻은 그런 자료들이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곳에서 얻었나요. 그리고 또 농촌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학문기관인가요, 아니면 정부기관인가요. 그다음에 6.28이라는 걸 말씀하셨지요. 6.28이 뭘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

제가 얻은 정보는 적대적인 곳에서 얻지 않고 북한을 드나들거나 북한을 지원하는 기관, 중립적인 기관들로부터 얻은 자료입니다. 저희 연구기관이 정부와 독립되어 있느냐. 정부와 독립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기관은 아닙니다.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구기관이기는 하지만 정부하고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2012년 6.28방침이라는 문건이 나왔는데 그 문건이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 그 문건이 나왔다, 그리고 그 문건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전부다 시사매체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 정권의 경제전략, 경제개혁조치 이런 것을 연구할 때 그것이 유일한 어떤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6.28방침이라는 것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문에서 저희가 분석한 것은 아까 말한 세 가지 차원이고, 그 세 가지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분석하니 결국은 그것은 개혁적 조치라기보다는 북한정부가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 마이클 커비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결과에 보면 북한에 당국 또 북한정권이 국제적인 의무에 맞추어서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원을 활용해서 북한주민이 배고픔을 겪지 않게끔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이 주어진 최대 자원을 가지고 북한주민이 굶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시는지요.

○ 김영훈

글쎄, 그 북한 당국이 국제적인 의무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제 규범에 보면 시장 경제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고 사회주의 경제를 고집하는 국가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이 볼 때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 당국 나름대로 사회주의경제 체제 하에서 식량을 조달하고 분배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 당국은 그러한 노력을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북한 당국이 봉착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국제적인 사회주의 경제블록의 해체, 그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 경제적인 고립을 극복하는데 북한 당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부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시장 경제가 법과, 북한 내부의 법과 제도와는 관계없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북한 당국의 권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 당국이 충분히 내부에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급도 주민들에게 못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실패의 결과로 북한의 식량사정,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 사정, 인권 사정이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 마이클 커비

네 번째 질문은요. 국제원조를 요청할 때 특히 이제 식량이 부족해서 국제원조를 요청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WFP나 FAO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겪는 고통을 비상사태 때 긴급 원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에서 분석한 기간에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는지요. 즉, 국제적인 식량 원조를 요청을 해서 북한, 특히 취약계층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 김영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명시적으로 국제 사회에 식량을 요청한 것이 많지 않고 아주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남한의 경우, 남한 당국에게 식량 부족 상황을 남한 당국에게 공개를 하고 또 남한 당국에게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또 요청한 것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 당국이 식량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고 남한 당국에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였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 마이클 커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감정적인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 정부 쪽에는 사실 원조를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보셨을 때 과연 북한이 국제기구, UN이라든지 WFP라든지, FAO 등을 통해서 북한 쪽에서 추가적으로 식량 원조를 요청을 해

서 북한, 특히 취약계층에 음식과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영훈

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북한 당국이 자기들의 사정을, 그러니까 식량 부족 상황이라든지, 경제침체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후반에 식량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 또 식량위기 상황을 국제사회에 대표적으로, 국제기구들이지요. 국제기구에 발표를 하고 요청한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국제기구들에서 본격적으로 식량지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북한 당국 나름대로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들 수 있냐면 우선 자기들의 사정을 1998년도에 밝혔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매년 WFP, FAO, 농업전문가들이 북한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그것은 북한 나름대로 개방적인 조치를 좀 취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든지, 정확한 식량상황의 자료를 국제사회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을 보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서들 중에는 특히 간과한 계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 임산부라든지, 아이들이 특히 이제 간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층이 식량원조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마디로 식량 공급에 있어서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에 어떤 체계적으로 차별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는 이렇게 식량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식량 공급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대략 몇 명이 이러한 전략, 이러한 차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보시지요?

○ 김영훈

취약계층에 국한해서 말씀하셨다면 의도적인 차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약 52%~27%, 식량 소유량에,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식량 총 양의 52%~27%만이 북한 당국이 배급을 통해서 공급을 했다는 사실은 취약계층이든, 취약계층이 아니든 공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양을 취약계층이 아닌 보통 주민들은 시장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척들을 통한 식량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가서, 그러니까 산이나 들에 가서 식량을 채취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비해서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식량 부족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북한 당국의 의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남한, 북한 당국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충분히 케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국제기구도 이 식량이 부족한 데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 마이클 커비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영양실조라든지 거의 빈혈에 가까운 영양부족상태가 어린 아이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충분히 영양공급을 못 받게 되면 성장이 둔화가 되어서 뇌 발달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북한 정부가 이런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영훈

네,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북한 정부는 이렇게 거의 전염병 수준으로 어린 아이들이 특히 영양실조가 지속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영양실조가 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취한 어떤 조치들 때문에,

어떤 경제정책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량공급을, 식량원조라든지 또는 농업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결과로써 아이들에게 충분히 식량이 못 가서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된 상태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될까요?

○ 김영훈

글쎄요, 그것은 인정하고 안 하고는 스스로 북한의 경제 체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그것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마이클 커비

그러면 WHO 보고서에 나온 문제에 특히 내용을 보면 어떤 나라 것도 그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안 받은 곳이 과연 있나요? 그러니까 북한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 중에서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저체중이라든지, 신생아, 저체중이라든지, 아이들의 성장 둔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조를 요청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북한 말고?

○ 김영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기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빠진단든지 심각한 식량부족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대부분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

청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북한에 공급함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특히 1990년대하고 그 이후에 식량원조를 공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북한이 식량원조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 김영훈

질문을 제가 정확히 캐치하지 못한 것 같은데, 국제사회 식량원조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충분하고 자세한 모니터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국제사회도 그렇고 국제기구도 그렇고 북한당국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북한정부가 식량원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이 식량원조를 공급받음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각각 직접 마을단위로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든지 허락하

지 않고 있다든지 하는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 김영훈

그러한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WFP 국제기구를 통해서 원조할 때 WFP와 북한당국이 협약을 맺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모니터링 과정이라든지 모니터링에 관한 보고서를 읽어 봤을 때 국제사회기준에 합당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니터링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북한이 원조식량을 충분히 타격계층에게 충분히 잘 공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국제사회가 제한 없이 또 정확한 자료를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한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기도 한데요. 북한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요. 식량상황에 대한 북한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 김영훈

예. 우리는 연구하는 기관이고 데이터를 만드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데이터를 FAO나 WFP, UNDP, WHO, UNICEF 그런 국제기구들이 주로 북한에서 활동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데

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연구합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 관련된 것이라든지 식량 작물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는 대부분 국제기구에서 제공한 데이터들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직접 북한으로부터 얻고 있는 정보는 없으신 거네요.

○ 김영훈

그렇지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떤 주장이 있냐면 북한이 군비예산을 줄이고 그것을 농업 쪽에 예산을 할당을 한다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국방비를 줄이면 식량 부족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극복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던 질문인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의 의도성이랄까요. 박사님은 북한정부가 식량공급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차별대우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보면 군이라든지 당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식량이 잘 공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증언을 들어보면 모든 군이 아니라 일부 군에서는 식량

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군인들 같은 경우도 식량원조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한반도 내에서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합당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훈

예. 북한당국이 북한주민들에게 식량공급하는데 있어서 의도적인 차별이 있다, 없다. 저는 의도적인 차별이 없다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는지를 저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군에 투입할 것을 식량에 투입하면 북한의 식량문제가 좀 더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썄요, 제가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북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른 예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 식량을 외부로부터 구입한다면 식량부족 상황은 어느 나라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소냐 비세르코

저도 한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사실 식량수입을 합니다. 북한 같

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실패하고 그래서 식량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경제 자체, 국가 자체의 문제가 있는 하나의 징후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영훈

그렇지요. 한 나라의 경제, 한 가족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생활품을 구성원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경제, 그 가족의 경제는 심각한 파탄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 소냐 비세르코

고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오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질문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추가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요.

○ 김영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고맙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가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국제 사회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사위원회는 14:30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17 중지)

(14:51 재개)

○ 마이클 커비

이제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2차 공청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유린상황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차관님 신동의 차관님과 또한 대한민국 인권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게 외교부께서 저희를 보시려 하시어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후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공청회에서는 안명철 선생님을 모시고 첫 번째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선생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셔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도움을 주시기로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국께서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시고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성함이라든지, 선생님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실제 성함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지요. 맞습니까?

○ 안명철

네, 동의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또한 선생님께서 앞으로 주시게 될 증언이 진실 된 것임을 맹세하십니까?

○ 안명철

네, 맹세합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께서서는 원래 북한 출생이신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명철

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핵심군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향이 함경남도 홍원군인데요. 홍원군 식량배급소 당비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핵심계급에 속했구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다른 사람들, 다른 집들보다 좀 부유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그 일가는 북한의 신이다. 이런 대우를 항상 받고 자랐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농업전문대를 졸업한 다음에 1987년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수용소 경비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이런 수용소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입대를 해서 처음에 간 곳이 함경북도 경성에 있었던 11호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병교육을 받았고 북한에 전국에 있는 약 4개의 수용소에 다니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제 같이 입대를 해서 갔던 동기들이 성분을 보면 차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핵심당원 위주로 이제 선출을 했습니다. 87년에 홍원군에서 저 혼자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대로. 그래서 갔을 때 저희 동료들의 계급이 모두 북한의 보위부원 자식들과 그리고 항일투사 가족들, 그리고 전쟁 참가자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동료들 중에 제가 그래도 그중에서 계급이 제일 낮은 편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북한의 수용소 경비대는 신병교육을 다 한 곳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입대했을 때 북한에는 12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87년에 약 400명의 신병들이 이제 11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교육을 받았고 각 전국에 있는 수용소들마다 배치가 되어서 배치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배치 받았던 곳이 함경북도 홍성군 14번호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여러분, 북한이 수용소가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입대를 했을

때 저는 수용소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수용소라는 표현을 안 하고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공칭 명칭은 국가안전보위부제7국에 보면 농장지도국입니다. 그리고 1개 수용소 당 3개의 명칭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14호, 15호, 이런 명칭들은 군부대 명칭을 썼습니다. 조선인민경비대 2914 군부대, 그러면 14호, 신동혁 씨가 나왔던 14호 수용소가 되겠고요. 제가 있었던 22호, 마지막으로 있었던 22호 수용소는 조선인민경비대 2922 군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숫자를 칭해서 몇 호, 몇 호, 수용소라고 했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요덕 수용소, 회령수용소, 이런 발언은 그 지역의 명칭을 따라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명칭이 있었는데 그것은 각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22호 회룡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백살구라는 과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살구 보위부라고 지칭을 했고요. 16호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산이 높은 데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곰산 보위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북한의 수용소라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북한은 보통 관리소라고 표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오니까 그것을 수용소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좀 의문스러웠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몇 호, 몇 호 관리소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수용소라고

쓰는가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수용소라고 하니까 북한 자체가 수용소라는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관리소라는 것의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안명철

이제 북한에 요구를 할 때 무슨 수용소라고 하면 북한은 당연히 자기는 표현은 그렇게 안 하니까 없다고 하겠지요. 조사위원들이 북한에 대해서, 수용소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조선인 민경비대, 관리소라고 표현을 해야지 북한이 이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소라고 할 때는 수용소를 관리하는 국이 국가보위부 제7국에서 하는데 7국 명칭이 농장지도국입니다. 산속에 있는 농장들을 관리한다고 해서 농장지도국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13호 수용소는 함경북도 종성에 있었는데 그 수용소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제가 군 생활 3년 정도에 북한이 대대적으로 수용소를 이제 북한의 전역에 있는 수용소들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1989년부터 91년까지, 그때 당시 12개 수용소가 있었던 것을 6개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다 옮겼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서 현

재는 지금 6개 수용소에 120만 명이 갇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도 13호 수용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16호, 평양에 있는 16호 수용소로 가서 근무를 해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근무했던 곳이 22호 회룡 수용소입니다. 그곳에 약 5만 명이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대를 해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았던 것이 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북한당을 반대한 반동군지들이고 우리 미래의 원수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이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면 너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반항하거나 도주하거나 하면 사살해도 좋다. 그리고 도망가는 정치범을 잡으면 대학에 보내준다. 이런 교육을 항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입대를 해서 3년 동안에는 수용소 외곽에서 전기 철책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나쁜 사람들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경비대들이 태권도 훈련하거나 격술훈련 할 때는 상관들이 이제 지시를 줍니다. 한참 연병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밭에서 일하는 정치범들을 보면 강제로 부릅니다. “이리 와라.” 하면 정치범들이 뛰어오거든요. 뛰어오면 앞에 세워놓고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발차기라든지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 이런 것을 시킵니다. 그 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적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저도 죄송하지만 한 번 해봤습

니다. 처음 저한테 마주쳤던 정치범은 키가 굉장히 작았고 장애인이었습니다. 등에 흙이 나왔던 장애인이었는데 그때 발로 차니까 까무러쳤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저는 죽은 줄 알고 굉장히 좀 당황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았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적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또 저희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 마이클 커비

죄수들을 상대로 훈련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연습을 했습니까?

○ 안명철

태권도, 북한 군인들한테 태권도 연습 격술훈련을 시킵니다. 군에서 가르치는 훈련이 있는데 요 그 훈련을 이제 할 때는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실전에 한 번 해본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 하기가 싫으니까 이제 강제로 밭에서 일하는 정치범을 철책으로 끌고 가서 AK총으로 사살한 다음에 도망가는 정치범을 잡았다고 허위보고를 해서 대학에 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는 이제 경비대 군인들이 보면 사상이 조금 보위원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사상이 약하다고 그래서,

○ 마이클 커비

죄수를 불러서 거짓으로 도망가는 죄수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이름 기억하십니까?

○ 안명철

강용철입니다.

○ 마이클 커비

강용철 씨 사진을 본다면 그 얼굴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안명철

네, 기억합니다.

○ 마이클 커비

강용철 씨가 한 명 이상 그렇게 사살했습니까? 무고한 죄수를 불러다가 사살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 안명철

그때 당시 5명을 사살했습니다. 5명을 사살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용소 안에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5명이 이제 철책으로 왔다는 것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공명심에 의해서 했던 것이 판단은 되었지만

보위부 입장에서 봤을 때 경비대 군인들한테 만약에 그런 강제로 했다고 한다면 군인들이 사기진작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눈감아주고 대학에 보낸 경우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강용철 씨가 한 일 때문에 조사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강용철 씨의 직속상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죄수를 죽였기 때문에 조사를 벌였다는 것인가요.

○ 안명철

아닙니다. 관리소 수용소에서는 죄수가 탈출한다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5명이 동시에 탈출하다가 경비대에 걸려서 사살당했다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위부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조사결과를 보니까 강제로 끌고 간게 조사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밝히면 다른 군인들한테 사기진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눈 감아 주고 그냥 대학에 보내줬습니다.

○ 마이클 커비

보위부의 뜻은 무엇인가요.

○ 안명철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수용소 안에 갇혀 있

는 정치범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어차피 그 안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수용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하나는 혁명화구역이라고 지금 짧은 2년에서 3년 동안에 짧은 기간에 단련시켜서 사상개조 시켜서 바로 내보내는 수용소가 요덕의 혁명화구역이고, 나머지 수용소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부분의 탈북자는 수용소 관련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요덕 수용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유일하게 있는 사람이 신동혁 씨인데 그 사람은 정말 운이 좋게 14호 수용소에서 탈출했어요. 완전통제화구역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은 죄수로서는 신동혁 씨 하나고, 저는 경비대이기 때문에 가능했구요. 그래서 완전통제구역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북한인구에 속하지 않는 공민권 박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도 완전통제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민권도 없고 어차피 강제로 일 시키다가 죽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제압을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항상 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경비대의 역할이 뭐냐하면 각 수용소마다 경비대의 교육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신병교육을 받고 각 부대로 각 수용소마다 배치되기 때문에 경비대의 역할은 정치범들이 도

망을 가지 못하게 외곽에 전기철책을 설치하고 지키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폭동을 하거나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때 진압해서 사살하는 임무와 유사시에 전쟁이 난다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 사람들 다 사살하게끔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이 경비대의 역할이었고요. 각 수용소마다 보면 터널들이 다 있습니다. 언제 봤냐면 1992년에 이란, 이라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 미국에 벙커부스터라는 미사일이 터널을 뚫는 그런 것을 보고 북한이 수용소마다 터널을 강제로 뚫게 했습니다. 뚫게 했는데 사용 용도가 유사시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정치범들을 폐광이나 갭도에 넣고 몰살하게끔 된 시나리오였고요. 그래서 경비대 모든 훈련도 정치범들이 도주하거나 폭동을 일으켰을 때 진압하는 훈련을 했고요.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몇 분 안에 도착해서 사살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경비대가 약 10년 정도 군복무를 마치면 8년 정도 근무 중에 90%는 대학을 보냅니다. 대학을 보내서 김일성종합대학이라든지 다른 대학에 보내서 그 대학을 졸업하면 다시 수용소 보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용소와 인연을 맺으면 경비대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학에 갔다가 그 수용소로 돌아와야 되고 군생활을 잘 못해서 대학에 못가는 친구들은 10년 군복무를 마치면 평양시에 있는 국가보위부

본청에 경비원으로 발탁됩니다. 그런 혜택을 주고요. 수용소 보위원들 자체가 수용소 경비대는 수용소 보위원들과 국가보위부 7국 양성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보위원들을 키우는 양성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어떤 걸 훈련 받으신 건가요. 수감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할 때 만약에 죽을 수 있는 공격 같은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배우셨나요.

○ 안명철

아닙니다. 공격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죽여라, 살려라 그렇게까지 판단 안 합니다. 그런데 때리다 보면 북한말로 하면 제대로 맞아서 한방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격술이라는 게 우리 여기 말로 하면 태권도인데 우리가 하는 태권도와 군에서 배우는 격술은 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데 북한에서 배우는 격술은 사람의 급소만 건드리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데 급소가 다 있습니다. 그 급소를 공격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런 위주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 경비대 내에는 독자적으로 정치범수용소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야근에 근무 나갔는데 정치범이 뒤에서 도끼나 낫으로 찍거나 이러면 자기가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게끔 미리 교육 받습니다.

○ 마이클 커비

수용소에 계시는 동안 처형되는 장면 여러 번 보셨지요.

○ 안명철

예.

○ 마이클 커비

대략 계시는 동안 처형되는 장면을 몇 번 정도 보신 것 같으세요?

○ 안명철

제가 수용소에 있을 때 3년 뒤부터 대대 본부 운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당시 운전병으로 근무했는데 운전병의 역할이 뭐냐 하면 만약에 공개처형장이 결정되는 날이면 그 장소에 군인들을 싣고 가고 싣고 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집행할 때는 수용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수용소 보면 보위과라는 곳이 있고 관리과라는 곳이 있고 후방과가 있고, 경비과가 있습니다. 보위과는 구류장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규칙을 어기거나 하면 처형할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가 보위과고, 관리과라는 곳은 그 안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후방과는 그 안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유통시키는 부

서이고, 경비과에 경비대가 속해 있는데 공개 처형하거나 할 때 그 판단은 보위과에서 진행합니다. 보위과가 이 사람을 처형해야겠다고 결정하면 경비대 처형장소에 군인들을 포위하게끔 경비대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경비대가 처형장소에 동원되는데 그런 날이 오면 제가 후방차 운전병을 했으니까 트럭에 두 대 정도 동원됩니다. 다른 동료들 동원 돼서 처형장소를 경비대가 무장하고 실탄 120발, 군견도 한 5마리 끌고 가서 그 주변을 포위하고 사격수는 보위과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경비대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비대 군인들 중에서 총을 잘 쏘고 사상이 투철한 사람 세 명을 골라서 그 사람 계급이 하사, 중사, 상사 이 계급에서 실시하는데 계급장은 상등병 줄 하나짜리로 통일 시킵니다. 그것은 수용소 경비 나중에 사격수에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일 때 세 사람이 나가서 세 발씩 쏩니다.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을 경비대가 할 때가 있고 보위부가 할 때 있습니다. 공개처형장소에는 군인들이 항상 나가서 소요사태나 폭동 일어났을 때 사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보통 처형을 많이 할 때는 1년에 20번 정도도 했었고요, 그런데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형하는 목적은 통제가 안 되거나 무슨 탈주 도주기도사가 발생했다 하면 바로 실시하고요. 기물파손이라든지 소를 죽였을 때 관리를 잘 못해서 죽였다 하면 한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서 처형함으로써

여러 사람을 각성시키고 교육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는 1년에 2회 정도밖에 안 한 해가 있었고 그때 그때마다 틀렸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런 처형까지 가기 전까지 어떤 사법 제도 같은 것이 있었나요? 판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렇게 사형 판결이 나오면 이것을 갖다가 항소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런 것이 있었나요?

○ 안명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명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을 사상 개조시켜서 다시 사회로 복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통제구역은 공민권이 없어요. 그래서 판사, 검사 말도 모르고요. 그래서 집행을 할 때는 보위과에서 보위지도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목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만약에 소를 죽였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죽였다 그러면 관리자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너도 저렇게 관리를 못하면 너도 저렇게 된다는 것을 딱 각인을 시킵니다. 판사나 검사, 이런 것도 없어요. 보위원이 지시를 시킵니다. 죄를 열거한 다음에 나중에 끝날 때 “인민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한다.” 한 마디만 하면 사격지휘관이 나와서, 사격수가 앞으로 나와서 총을 쏘면 끝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사격수는 자원한 것은 아니지요? 뽑힌 것이지요?

○ 안명철

네, 뽑힙니다. 그런데 그 뽑힌 기준이 군복무를 좀 오래하거나 3년 이상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총을 좀 잘 쏘고 사상이 조금 투철한 사람들 중에서 고릅니다. 특히 이제 대대 직속이라고 있는데요. 수용소 병력을 보면 한 개의 수용소에 20호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수감자가 5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경비대 병력이 약 1천 명 정도 되었고요. 보위부원들을 보면 대략 약 2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수용소 소장은 이제 원스타입니다. 우리나라 원스타로 되고 그래서 계급이 일반 부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질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때 수용소에서 강제 낙태되는 것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 수감자들 중에서 강제로 아기를 낙태하는 경우, 아기를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안명철

예. 제가 입대해서 2년 차에 있었는데 저희

분대장이 그때 당시 한도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순찰을 나갔다가 정치범 여자를 강간했습니다. 강간을 했는데 여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밭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는 이제 여자하고 아기를, 산모를, 구류장에 데려가서 조사를 했는데 아기 아빠가 누구냐고 조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강간당했다, 군인한테 강간당했다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수용소 군병들 먹이는, 개밥을 끓이는 가마솥이 있습니다. 넣어서 죽였고 여자는 비밀 청을 해버리는데 그 사건이 커져서 그 군인도, 한도철도 옷 벗고 사회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용소는 이제 철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용소에서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이 허용된 경우가 수용소 안에서 어차피 수감자들은 평생 못 나가니까 노동력을 갖다가 고취시키기 위해서 '표창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을 해서 관리과 지도원이 판단을 해서 "일 잘하는 사람 누구하고 살아." 하면 그것이 이제 표창결혼인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신동혁 씨인데 그런 경우를 제한 나머지 사람이 만약에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용소에서 큰 일이, 문제가 되고요. 그 이유가 수용소가 생긴 것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1958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김일성 지시에 보면 정치범들은 3대를 멸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각 수용소 경비대나 보위보 건물에 입간판에 보게 되면

현판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지시는 '도망가는 정치범은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하고 현판이 딱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씨를 말려 죽이는 것이 수용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창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아기를 낳으면 상관없습니다. 몇 명을 낳든지 상관을 안 하는데 상황이 틀리지요. 그 상대가 만약에 정치범이다, 같은 정치범끼리 해서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면 남자는 청사를 시키고 여자는 이제 수용소에서 제일 어려운 탄광이나 광산, 이런 데에, 가장 어려운 곳으로 쫓아 보내고요. 그리고 그 상대가 보위원이라고 그러면 정부에 따라서 보위원들은 사상이 조금 더 투철하고 그리고 근무 경력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씩 눈감아주는 형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았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아기를 낳았다면 보위원도 옷을 벗고 사회로 쫓겨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한 보위원도 있었습니다. 13호 수용소에서, 19번에서 보위원이 자살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경비대가 만약에 여자를 건드려서 아기를 낳았다면 정치범은 이제 힘든 데로 보내고 만약에 아기를 뱉 수 있나, 아니면 단순 강간이나, 아기를 낳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아기를 낳았다면 비밀처형을 시키지만 아기를 안 낳고 단순하게 강간을 당했다면 그 여자는 제일 힘든 곳으로 쫓아 보내고 그 상대방인 남자는 이제 경비대가 되겠지요. 이 사람은 충성심이 약하다고

해서 출당철직으로 해서 사회로 쫓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앞으로 좋은 부대나 좋은 직책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2호 수용소에 있을 때 저희 분대장이 양지철이라는 중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하사였습니다. 중사가 있었는데 한진덕이라는 정치범 여자를 강간을 했습니다. 강간을 했는데 정치범들끼리도 다 스파이들이 다 있습니다. 감시체계가 다 되어있는데요. 5인조, 아니면 3인조로 이동하게 되어있게끔 되어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것이 걸렸어요. 걸렸는데 보위부 그 여자는 고문을 받았고 불고문도 당하고, 탄광에 제일 힘든 데로 쫓겨 갔고요. 그리고 양지철 중사는 어느 날 갑자기 대대가 비상소집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연병장에 다 모였더니 대대장이 나와서 중사 양지철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급장을 뜯고 출당철직 우리 적과 내통을 했다, 이러면서 강제로 제대를 시켜서 집으로 쫓아 보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런 공식적인 처형 외에도 일부 수감자가 매를 많이 맞아서 죽은 경우도 보셨지요? 보신 적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안명철

그때 제가 운전병으로 근무할 때인데요. 맞아

죽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22호, 13호 수용소에 있다가 22호 수용소로 이감이 되면서 왔는데 그때 당시 차를 바로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22호 수용소가 기존에 있던 경비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텃새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로 못 받아서 조수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주성철이라는 상사가 저한테 제가 이제 조수로 따라다녔는데 22호 중봉탄광에 가게 되면 벽돌을 만드는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 갔는데 나이 먹은 마흔 살 좀 먹은 정치범이 일을 하는데 아마 몸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잘 못하니까 “너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발로 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대 맞고 했는데 그래도 일을 잘 못하니까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스타칭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휘두르는데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위부에 즉보가 되었고 보위부 담당지도원이 내려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지는데 애가 일을 똑바로 안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보위원이 보더니 경비대한테 욕을 해야 되는데 경비대한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오히려 일을 시켰던, 작업반장을 혼내는 것이예요. 정치범 작업반장을 혼냈고 주성철 상사는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일성종합대학까지 가게 되었고요. 경비대가 정치범을 때려죽이거나 사살해 죽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처벌

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3호 수용소에 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수용소 경비대가 군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치범이 도주했을 때 잡을 수 있게 군견을 훈련시키는데 당시에 13호 동포에 있던 정치범 학교가 있는데 어린애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3명이 군견에 물려서 죽었는데, 관리자가 관리를 잘 못했는데 김영철입니다. 군견이 넘어 와서 학교 갔다 집으로 가던 정치범 애들을 덮쳤는데 그 애들이 군견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잡자기 쉬고 있는데 비상소집 나서 갔는데 이미 애들은 물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고, 원래 사람을 개가 물어 죽이면 그 개를 총살하는 게 맞거든요. 군견도 군인과 똑같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는 대대장이 군견 관리 잘못했다고 군견수 김영철이한테 비판을 하는 욕을 하는 건 있었는데 며칠 뒤에 그 다음주 월요일인가 대대 전체를 모아 놓고 군견관리를 잘 했다, 그 군견이 정치범 물어뜯게 해서 죽였지만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한다면 칭찬 받았습시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혹시 계시는 동안 수감자들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경비도 있었나요.

○ 안명철

수용소 경비대도 군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비대 수용소 자체도 보위원들보다는

사상이 덜 교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자체가 북한의 산간 오지에 다 있다 보니까 사람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눈뜨면 보는 게 까마귀 아니면 정치범들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역겹게 생각하고 이랬는데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동료들 중에도 정치범들 속에 약간 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있었지만 그걸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동정하면 나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과정에 보면 측은하게 생각하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일 때문에 수치를 느끼신 적 있습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 안명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그 안에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인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운전병이 되면서 매일같이 정치범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일도 시키고, 그러다 보면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일 시키다 보면 심심하고 이러다 보니 일하는 사람 한 명을 불러다 물어봤습니다. 너 여기 안에 들어 올 때 전 고향이 어디냐, 무슨 죄로 들어왔냐고 물어보면 제가 물어본 사람 중 90%가 자기가 왜 들어 왔는 줄 몰라요.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밤에 보위부 차가 들이 닥쳐서 우리 가족들을 전부다 싣고 들어왔는데 내려놓은 곳이 이곳이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왔더니 나는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갚아야 한다.” 거의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교육받았는데 죄를 지은 본인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죄인인데 자기 죄를 모를까 의문을 가졌는데 군생활 8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급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휴가 가서 집에 갔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없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북한이 식량사정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식량배급소마다 중앙에서 검열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홍원군 식량배급소 최고책임자로 있다 보니까 검열 내려온 사람들한테 술자리 접대하는 자리도 있었고 그래서 술자리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 지금 쌀이 없는 게 밑에 간부가 잘못해서 쌀이 없는 게 아니고 위에서 잘못해서 다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배급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는 북한에서 당정책 위반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가 술이 깨고 나서 생각해 보시니까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하시다가 양젓물이라는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살은 조국반역죄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집에 있던 어머니를 바로 체포해서 수용소에 데리고 갔고, 조사과정에 있었고 제가 갔을 때 어머니는 수용소에 조사과정에 있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 하나만 있었고 그리고 제가 2남 1녀 중 장남입니다. 제 남동생도 국가보위부 국경경비대에 근무 중이었는데 동생도 제가 부대와서 들어보니까 동생도 그 부대에서 바로 체포를 해서 수용소에 데리고 왔고 여동생도 데리고 왔고 저도 그걸 알고 오니까 저도 감시를 붙였더라고요. 저는 그 때야 우리집이 당하고 나니까 그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왜 들어온지 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구나 알게 됐고 그걸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북한에 살 수 없게 됐고, 또 수용소 안에 상황을 몰랐다면 저는 장남이니까 두 동생과 어머니가 있는 곳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너무 잘 알다 보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탈북을 하기로 결심한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 안명철

예, 그 상황을 알고 부대복귀한 때가 6월 20

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게 된 거
는,

○ 마이클 커비

몇 년도였습니까?

○ 안명철

1994년이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계속 말씀해 주세요.

○ 안명철

그걸 알고 왔더니 저한테 감시를 붙였더라고
요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
라고요 너 집에 갔다 오더니 집에 무슨 일이 있
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해 주기를
왜 너같이 생활 잘하는 애가 갑자기 집에 갔다
오더니 감시하라고 그러느냐. 정치부에서 너를
감시하라고 그러더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잡혀 가겠구나 알게 됐고 수용
소 경비대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나오기도 힘듭
니다. 차출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몇 명 안 되
기 때문에. 그렇고 서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
를 체포하려면 국가보위부 7국 허가를 받아야 하
는데 그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 김일성이 죽은 겁
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북한의 모든

행정들이 다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요. 그래서 감시를 떼려고
하니까 일단은 저한테 붙은 감시를 떼려고 하니
혈서를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김일성 참배
를 하고 그럴 때 김일성 동상 앞에서 혈서를 썼
습니다. 쓰고 나니까 “너는 조금 믿을만하다.” 윈
래 운전병 발탁기준이 일단은 사상이 투철해야
하고 충을 잘 쫓아하고 태권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고 그래서 한 해에 한 개 대대에
서 한 명 내지 두 명만 차출하거든요. 그런데 기
준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러
다 보니 “재는 훈련도 잘하고 사상도 투철하고
그래서 운전병이 됐지만 아버지 일로 인해서 안
타깝다. 그러나 재는 잡아가기는 해야 하는데 너
무 심하게 보지는 말아라.”라고 했다고 친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감시를 좀
떨 수 있는 게 있었고 그래서 감시가 약간 소홀
한 틈을 타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 안명철

탈출할 때 이제 정치범 2명을 대동해서 탈출
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범 원의 형제였는데요.
제가 20호 수용소에서 만났던 친구들인데 이 친
구들은 2살 때와 4살 때 수용소로 끌려왔는데 제
가 만났을 때는 24살과 26살이었습니다. 20년 넘

게 산 것이지요. 이 친구들은 제가 석탄 실으러 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제가 시키는 일을 잘해주었고 마음속으로 좀 너무 안 됐다. 2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네 좀 안 됐다, 해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나라까지 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탈출 과정에 근무 나갔다가 근무 마치고 완전무장을 하고 AK소총과 권총 여러 자루 차고 나오면서 그 친구들을 두 명을 제 차에 태우고 나오던 중에 그 친구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이제는 교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총을 한 자루씩 줄 테니까 내가 선호하면 무조건 쏘라, 하고 권총을 한 자루씩 줬습니다. 그걸 보고 자기네들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중간에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탈출에 실패를 했고 저만 이제 트럭을 끌고 수용소를 빠져 나왔는데 그 수용소를 빠져 나오는데 저는 평상시에 운전병이었으니까 수용소 초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까지 차를 끌고 나왔고 두만강에 차를 버리고 중국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몰살에 밀려서 두만강에 무기들은 다 버리고 맨몸으로 중국까지 갔고 중국에서 이제 연길이라는 곳에서 할빈으로 가는 기차 칸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조선족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할아버지보고 좀 도와 달라, 북한에서 왔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도 모르고 돈도 없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도와줬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항이 대대적으로 검거 열

풍이 불었고 그 할아버지 도움으로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수용소 사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안명철

네,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위성사진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위성사진들을 보여주시겠습니까?

○ 안명철

이것이 지금 북한 전도인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용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대했을 때는 12개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38선,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경계선 38선이 있지요. 그것과 굉장히 거리가 먼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붕괴되면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내륙에 있던 수용소들을 다 통폐합한 과정에 현재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14호 수용소가 평안남도 개천에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 부대 명칭은 조선인민경비대 2614 군부대입니다. 북한 말로 하면 개천 관리소가 되겠지요. 여기에서는 수용소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15호 요덕 수용소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다 국가보위부 7국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수용소들입니다. 그 위에 수용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15호 요덕 수용소는 유일하게 혁명화 구역하고 완전 통제구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화 구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다시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오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용소이고요. 그리고 16호 화성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수용소들은 북한이 핵실험이 했지요. 길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핵실험 장소와 일치합니다. 거의 그 바로 철책 옆에,

○ 마이클 커비

커서로 지금 말씀하시는 곳의 위치를 조금 가르쳐주시겠습니까?

○ 안명철

네, 이곳입니다. 화성 수용소인데요. 조선인민경비대 2916 군부대입니다.

○ 마이클 커비

이곳이 북동쪽에 있는 곳이 맞습니까?

○ 안명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전도로 보여드린 것이고

요. 이제 구체적으로 수용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 사진들은 어디에서 획득하신 것입니까?

○ 안명철

저희가 이제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고 수용소 관련된 사람들이 수용소 해체를 위해서 모인 단체인데요. 그래서 각 수용소들마다 탈출한 탈북자들과 해서 자기가 있던 것을 구글 어스를 통해서 다 찾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신동혁 씨가 있었던 14호 수용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식 명칭은 조선인민경비대 2914 군부대이고요. 북한 말로 하게 되면 개천관리소가 되겠습니다. 이 수용소가 16호 화성 수용소입니다. 아까 핵실험 했다는 곳인데요. 아직 이 수용소에서 나온 수감자나 탈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수용소는 주생산물목이 동발목이라고 이제 탄광을 건설하거나 기차를 만들 때 나오는 나무 동발이 있습니다. 주로 생산이 되겠고요.

○ 마이클 커비

화성에 있는 이 수용소는 광물을 캐는 도구를 만드는 곳인가요?

○ 안명철

터널을 뚫으려면 광산이나 광물을 하려면 기

초 작업이 되는 나무 동발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붙임목입니다. 이것은 높은 산 속에 위치한 수용소인데 그것을 주로 생산하는 벌목장을 갖고 있는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는 요덕 수용소가 되겠고요. 이 수용소가 제가 있었던 22호 회령 수용소입니다. 마우스 댄 곳에 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많은 증언 했던 분들이 구류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독한 방입니다. 위치한 곳이 이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 댄 쪽은 보위원들이 사는, 보위원들과 경비대 가족이 사는 마을이고 그 옆에는 중봉탄광이라고 정치범들이 사는 동네인데 이 사이를 갖다가 정치범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전기철책으로 딱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정치범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없고요. 일명 이 보위원들이 사는 마을은 지상 천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치범들이 사는 지역은 지옥이 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보여주고 싶은 다른 사진들도 있나요?

○ 안명철

나머지들은 이제 다 수용소 안에서 자행되었던 고문이나 그런 사진들인데요.

○마이클 커비

이 사진들은 고문하는 그 현장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 안명철

네, 그렇습니다. 당했던 사람들, 이 그림은 제가 처음보다도 정치범들을 봤을 때 형상들을,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요. 고문당하는 사진들은 아까 많이 했던 비둘기 고문과 오토바이 고문, 기증기 고문, 각종 고문의 형태를 갖다가 고문당한 사람들이 기억을 해서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아까 비둘기 고문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문들이 자행되는 곳은 수용소 내에 보면 또 다른 감옥이 있습니다. 구류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 마이클 커비

구류장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 안명철

예, 현재 있습니다. 수용소 구조자체가 수용소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일정한 조사기간이 끝나면 수용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도 지켜야 할 10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위반하면 또 다른 수용소 안에 보면 또 다른 감옥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구류장인데요. 그 안에서 고문을 받고 처벌받다가 이곳에서 공개처형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살릴 것인지 결정하는 곳이 구류장입니다.

○ 마이클 커비

처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살려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재판이 있나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간부들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나요. 판사가 있어서 살려줄 것이냐 살려주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나요.

○ 안명철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통제구역은 이미 북한인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기준 잣대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해당 보위원 조사를 했던 보위원의 판단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합니다. 어떤 법의 기준이 없고요. 이미 사회지역에서 판결을 받았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15호 요덕 혁명화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형식적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철차가 있다고 들어는 못 봤지만 증언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문서 하나 보여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혁명화구역은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판사나 검사 이런 형태도 없고요. 보위원의 판단에 따라서 사형이 집행되고 살리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형하기 전에도 보위원이 무슨 무슨 죄를 읽어주고 사형에 처한다고 하고 집행하면 됩니다.

○ 마이클 커비

오늘 보여주시고 싶은 다른 사진들이 또 있습니까?

○ 안명철

그림들은 다 전시를 했고요. 너무 많은 양도 있지만,

○ 마이클 커비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전시되어 있는 스케치들을 말하시는 건가요.

○ 안명철

예.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이 그림들을 저희에게 넘겨 주실 수 있나요.

○ 안명철

예, 있습니다. USB에 파일을 담아서 조사관님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안명철 선생님께서 주신 USB에 있는 파일들은 S5라는 확장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 안명철

제가 수용소를 탈출할 때 북한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입대하기 전까지도 몰랐고 입대하고 나서 알았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회견

이나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사회 청문회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각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생겨서 저희 탈북자들과 북에 현재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NGO나 시민단체가 북한에 있는 수용소들 해체하라고 아무리 해도 힘에 한계가 있고요. 조사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여러 탈북자들이 하는 증언을 청취하신 다음에 북한 수용소마다 사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탈북자들과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 또 저희 가족도 포함 되겠지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행할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지금까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허가는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수용소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

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립된 수사기관이 북한에 가서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증언들의 진위여부를 판가름하고자 할 때 북한에 들어가서 수용소들을 간다면 수용소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인명철

예, 있습니다. 이미 2002년에 구글 어스 미국의 디지털 글로브라는 상업위성을 통해서 22호 수용소 전반에 대해서 위도와 경도 해서 다 나왔습니다.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 수용소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파일에 담겨있고요. 어떤 조사관님들이 북한에 방문하실지, 북한이 만약에 허가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작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 곳에 방문해서 조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북한이 자꾸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표현의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정치범수용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정치범수용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몇 호 몇 호 관리소이지 아니면 군부대 명칭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 표현을 북한식으로 바꾸어서 조사가 들어간다면 북한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사가 진행된다면 위치들은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오늘 이렇게 조사

위원회 앞에서 증언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셨나
요.

○ 안명철

저는 우리나라에 온 지 19년 정도 됩니다. 그
래서 저뿐 아니고 2만 5천명의 탈북자가 우리나
라에 와서 북한에서 당했던 것을 여러 언론매체
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우리 정부의 한계도 있습니다. 남북한 문제도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는 UN밖에 없
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UN에 가
서 청원서도 제출해 보았고 지금도 청원서 작엽
을 하고 있지만 이런 자리가 아니면 탈북자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게 됐고요. 탈북자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
습니다.

○ 마이클 커비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지금 저희에게 해 주신 증언 감사드리고요.
초반에 아까 경비로서 훈련받은 것 말씀하셨지
요? 그때 말씀하실 때 6개월 걸렸다고 그랬나요?
300여명이 그 훈련을 받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엄격한 교육

을 관리소 11에서 받으신 거지요?

○ 안명철

11호 정치범수용소는 1989년도에 비밀탄로 김
일성 별장을 짓느라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소 경비대 훈련은 평양시 석모리에 있는 옛
날 26호 수용소 자리에 신병교육대를 따로 만들
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병교육받고 수용소에 배치
되고요. 신병교육기간은 최소 신병 훈련소에서는
3개월을 받았고요, 저같은 경우는. 자대에 가서
또 3개월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은 6개
월이 됐었고요.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그 안에
간혀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과라고 받았고 진
압, 폭동 진압훈련 이런 걸 받았습니.

○ 마르주키 다루스만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개월 훈련
을 받으신 거네요. 사실 경비대 계시는 것이요.
사실 경비서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닐 거라
고 생각합니다.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
감자들만 경비하면 되는데 왜 6개월이나 교육받
지요? 6개월 동안 훈련받는 동안 어떤 과정이 제
일 오래 걸리나요.

○ 안명철

네, 수용소 경비대는 일단 가장 제일 많이 받
는 것이 사상교육입니다. 일반 부대하고 북한에
서 정치상학이라고 하는데 정치상학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이런 교육인데 그 교육 시간 자체가 일반 부대하고 2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60%는 사상교육이었고 나머지는 체력 단련과 합동진압훈련 이런 것이었는데요. 6개월 동안에 사상교육을 집중하는 이유는 그 안에 갇혀있는 정치범들에 대한 적대심 훈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적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기 위한 기간이 그래서 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용소 경비대는 10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갔다 온 다음에 다시 그 수용소 보위원으로 재 선발을 하기 때문에 보위원 후보 양성소입니다. 그래서 사상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길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교과서도 있었나요? 그러면 분명히 교육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훈련 자료요. 적기도 해야 되고 강의도 들으면서 받아 적기도 하고 그런 교육도 받으셨단 말씀인가요?

○ 안명철

네, 그렇습니다. 강연 자료라고 수용소 경비대가 교육받는 내용은 극비 문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부대하고 사상교육이 조금 틀리고요. 그래서 항상 받아쓰기도 했고 그래서 김일성 교시나 지시를 달달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교재가 있습니다. 훈련 교훈이라고 하는데 사

상교육에 대해서는 극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극비라고, 교재에도 보면 위에 극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반 태권도 같은 교육에 대해서는 일반 부대가 받는 훈련 교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술훈련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 전술훈련은 일반 부대는 다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수용소 경비대는 전술훈련 자체가 정치범이 도주를 했을 때 체포하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폭동이나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때 최단시간에 그 마을을 포위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각 수용소마다 다 있습니다. 대공포가 다 있습니다. 14.5mm 러시아제 고사기관총인데 원래는 대공으로 비행기를 잡는 무기인데 수용소에서 용도는 그것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증거인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정치범을 상대로 쓸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기억 속에서 교과서나 이런 데 배운 내용들을 받아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탈북할 때 갖고 오신 교과서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배운 내용들을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 안명철

네, 기억을 되살려서 작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교과서는 갖고 나오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김

일성 교시나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요약해서 적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요구하신다면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래서 혹시 그렇게 부탁을 드린다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마디로 교과서, 기억에 남는 한 기억에 있는 정도로 그 교과서 내용을 적어서 저희에게 주신다거나,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 **안명철**

네, 괜찮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 교과서에 수감자들을 적처럼 다루어야 된다고 배우셨고 그리고 한 마디로 인간이 아니라고 배우신 것이 맞나요?

○ **안명철**

네, 맞습니다.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지시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을 하지만 그것을 제가 조금 위원님들 가시기 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파일로 만들어서 조사관님들한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매년 기억하시기에 매년 수용소에서, 관리소에서 몇 명이 죽었나요? 그다음에 매년 새로 들어오는 수감 수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죽는 사람, 매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몇 명,

○ **안명철**

북한 수용소들마다 보면 들어오는 숫자와 죽어나가는 숫자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북한 일반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사건이 없다고 그러면 안 들어오는 해도 있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1992년에 러시아가 동유럽이 붕괴가 되면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수용소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열차, 화물열차라고 하는데 기차강통이라고 하는 동물을 실어 나르는 열차입니다. 그 기차로 이제 차량 6대, 6대로 해서 일주일 정도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약 한 몇 천 명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사망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은데 그 해 만약에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정치범들이 배가 고프니까 쥐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생존을 하려고. 그런데 수용소에서 보면 잡아먹을 쥐와 잡지 말아야 할 쥐가 있는데 항상 10월과 11월이 되면 들쥐라고 뒤에 이제 줄이, 다람쥐마냥 줄이 가 있는 쥐가 있습니다. 그 쥐는 들쥐라고 하는데 그 쥐의 균이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병을 일으키는 쥐가 있습니다. 그 쥐를 먹고 그것은 전염병인데요. 그래서 그때 91년경에 22호 수용소에서만 한 200명 정도

가 정치범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비대도 2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또 홍역이 한 번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많이 돌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제일 많이 죽을 때가 사람이 해빙기라고 겨울이 지나서 이제 식량이 밭이나 야산에 풀이나 이런 것이 돌아나지 않을 때, 뜯어먹을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죽어나갑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통계 숫자는 없지만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전혀 안 들어올 때가 있고, 또 많이 죽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혹시 수용소 근처에 묻을 수 있는 대규모 무덤이나 묘지, 이런 것이 있나요?

○ 안명철

네, 각 수용소들마다 보면 4개 수용소를 다녔는데 정치범들을 묻는 장소라고 따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죽어나가는 곳이 탄광지역에 사는 데 사고로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그 주변의 야산들에 갖다 묻는데 북한 수용, 정치범들이 죽을 때는 일반 사람들과 좀 틀립니다. 일반 사회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것이 묘지를 써서 봉분을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수용소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봉분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도 그 안에서 죄입니다. 그 죄를 다 못 씻고 죽었기 때문에

죄 값을 치러야 된다면서 평토를 해버립니다. 봉분을 올리지 않고 일반 평토를 하는데 그런 묘지들이 그렇게 보면 탄광 주변에 보면 움푹 파인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공동묘지가 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죽는데 물어 봤는데 그 위에 또 다시 파서 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다보면 뼈도 나오고 이래서 막 갖다 이제 묻고요. 그리고 각 작업반마다 주변에 있는 야산들은 다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범을 위해서 따로 마련된 공동묘지는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이 다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예, 고맙습니다. 제약 구역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가끔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보위부에서 허가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정권의 좀 더 높은 곳에서 허가가 되면 제한 구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안명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숙청을 당했는데 죄가 확실치 않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김정일이나 김정은 최고위층들에서 이 사람을 찾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러면

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3호 수용소에 있을 때 수용소 안에 식료공장이 정치범들이 있는 식료공장이 있었는데 그때 식료공장 기사장이 들어 오기 전 직업이 평양시 식료공장 총비서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졌는지 그 사람을 해방시켜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문실 비슷한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용소에서 따로 있었고 고문하는 곳이에요. 고문하는 사람들이 특수부대에 소속된 사람인가요? 아니면 경비대 누구든 고문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고문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나요?

○ 안명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소의 보위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보위과가 하는 역할이 구류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곳에 동원이 되는 사람들은 경비대 군인이 10년 정도 군복무를 마치고 그리고 다시 수용소 보위원으로 내려갔을 때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진행을 합니다. 사상이 투철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데 고문 방법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교재가 없습니다. 선배들이 하다 보니까 경험에 의한, 그리고 주변에 집게는 고문 도구가 되었고요. 고문 방법이나 이런 것은 선배들한테

서 물려받은 기술, 사람이 어느 쪽을 찌르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더라,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수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보위과라는 곳이 고문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런 내용은 어떻게 아셨지요? 누군가에게 들으신 건가요? 어떤 식으로 보위과가 고문을 전담하고 있고 보위과 중에서 누가 그렇게 고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게 됐지요?

○ 안명철

수용소는 한 개 부서입니다. 한 개 부서고, 그래서 각 부서파트별로 하는 일이 틀릴 뿐이지 같은 수용소이기 때문에 정보는 공유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구류장은 다 경비대가 그 주변에 경비를 섭니다. 야간에 경비대가 저도 근무를 했지만 구류장 옆에도 야간에 나가서 근무를 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햇볕쪼이기'라고 수감된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입니다. 그리고 수용소 구조 자체가 각 부서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보들이 100% 공유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군 생활을 하다 보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고문을 직접 해보신 적 있나요.

○ 안명철

저는 부서가 경비대 부서이기 때문에 고문을 직접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해봤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예, 고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안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비대의 일원으로서 선생님께서 획득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S5, S4라고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USB에 넣어서 주실 이미지들은 S5라고 저장하고 S6는 선생님께서 경비대로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저희에게 기록해주실 것을 S6로 저장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사무국과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 안명철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이제 다음으로 증언을 하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언을 들은 이후에는 잠시 휴식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증언을 들은 이후에 통일연구원에서 오신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P씨로 부르기로 했는데 그리고 북한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서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증언해주실 내용이 진실 된 내용이라는 것을 맹세합니까?

○ P씨

예.

○ 마이클 커비

제가 지금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인데요. 이대로 이렇게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 P씨

예.

○ 마이클 커비

1999년 가뭄 때까지 1999년에 자유시장에서 일하셨다는데 맞습니까?

○ P씨

예.

○ 마이클 커비

가뭄이 북한에 들었을 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P씨

먹을 게 없고 해가지고 집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한 두 시간, 세 시간 걸어서 와가지고 거기서 팔아서 하루 한때 식량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루 한때거리를 만들어서 며칠씩 강냉이 한 키로 가지고 일주일씩 살아가고 그렇게 했어요.

○ 마이클 커비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팔았나요.

○ P씨

집에서 엿을 해가지고서 시장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강냉이 팔아서 옥시를 사가지고 와서 또 엿을 만들어서 가서 팔고 그렇게...

○ 마이클 커비

당국이 내버려뒀나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시장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간부들이 당국에서 못하게 했나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나요.

○ P씨

장사할 때 단속하는 데도 있고요. 가만히 가만히 숨어서 파는데도 그렇게 팔기도 하고.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장사를 해서 먹고 살기에 충분히 벌었나요. 고난의 행군 때 충분히 벌 수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나요.

○ P씨

충분히 벌 수가 없지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밭에서 풀이랑 캐가지고 산에서 밭이나 이런 데서 풀 캐가지고 강냉이 옥시 때 껍질 발라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냉이 한 키로에 섞어서 식구들이 살아가고 그렇게...

○ 마이클 커비

UN이 식량지원으로 들여온 소포나 그런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 P씨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래서 식량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 P씨

식량이 부족할 때는 조금씩 집에 뭐 다른 집 같으면 집에서 재산이 조금 있는 건 내다 팔아서 그릇이나 이불이며 어떤 집들은 그런 거 팔아가 지고 밀천 삼아서 옥시를 몇 키로면 몇 키로 해서 장사밀천으로 해서 가서 만들어서 집에서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 팔아가고서 거기서 옥시 같은 것을 해가지고서 밭에 나가 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루 한때씩 살아가고.

○ 마이클 커비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국행을 결심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P씨

예.

○ 마이클 커비

중국으로 가기로 한 것은 혼자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식구들도 가기로 한 것인가요.

○ P씨

혼자서 떠나왔어요.

○ 마이클 커비

국경을 넘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결심하기 쉬운 일이었습니까?

○ P씨

아니요. 앉아서 굶어죽기보다는 어쨌든 중국에 가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오면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건너가든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왔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 가지고서…….

○ 마이클 커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 P씨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저희가 중국에 와서는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부터 제가 팔렸지요. 북한에서부터 팔려가지고 중국에 와서 팔려가서 몇 년을 살다가 다시 잡혀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 마이클 커비

팔려간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나요.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나요.

○ P씨

제가 북한에서 팔릴 때는 저 혼자뿐이었는데 중국에 와서는 여러 명이 있었는데 제각기 갈라져서 어디 갔는지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고요.

○ 마이클 커비

그때 당시에 부모님과 여동생이나 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지요.

○ P씨

부모님은 아버지는 제가 계실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님과 언니들은 다 제각기 어디 돈 벌러 가느라고 갈라졌는데 그때 거기서 북한에서 흩어져서 만나지는 못하고요. 제가 혼자서 있다가 중국으로 팔려와 가지고 북한에서 잡혀서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 다시 들어갔을 때 고향에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언니하고 오빠는... 오빠는 총살당하고 언니는 저 뭐야, 언니가 엄마랑 곁에서 다 그랬다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 마이클 커비

오빠가 왜 처형당했나요?

○ P씨

저희 오빠가 중국으로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오빠가 감옥에서 그런 병으로 동네 같이 있던 사람이 말하는데 오빠가 거기에서 병으로 죽고 그리고 언니는 중국에 사람들 같이 보내주고 그래서 총살당했다고 그런 소리만 듣고,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언니가 처형을 당한 것인가요?

○ P씨

예.

○ 마이클 커비

오빠가 아니라 언니가 처형을 당한 것이 맞습니까?

○ P씨

예.

○ 마이클 커비

제 옆에 앉아계시는 비세르코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돌려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감사합니다, 커비 위원장님. 제가 공청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P씨 선생님께서는 기아 때문에 가족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살던 동네에 있던 사람들도 어떠한 결과를 경험해야 되었는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기아에 대처를 했습니까? 가족 분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했는지요?

○ P씨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가난한 시기에는 먹

을 것이 없고 식량이 없고 아버지도 잘 드시지도 못하고 해서 힘들고 그래서 여기에서 같으면 같이 가족들 살아계실 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고 돈 없고 해서 돌아가시고 장사를 그것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식량을 해가지고 살아도 병 걸려도 고칠 수 없고 약도 다 돈 주고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고 어머니하고 저희들 가족들이 다 이렇게, 언니는 시집을 가고 식량 그것 때문에 다 뿔뿔이 부모, 형제들이 다 제각기 제 밥벌이 떠나고 저는 그때 어려서 학교 사회가 감시자라서 일을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엮이랑 하고 두비랑 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하루 한 때 벌이도 안 되게 그렇게 살았어요.

○ 소냐 비세르코

선생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북조선의 정부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음을 표현을 했나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 P씨

북한에는 살기가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까지 와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암만 일해도 먹을 것 주지 않고 식량도 안 주고 못살게 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친구들도 없는 애들도 많고, 그렇게 했습

니다.

○ 소냐 비세르코

중국에 있었을 때 누구에게 팔려갔고 팔려갔을 때 어떤 일을 시키던가요?

○ P씨

그것은 팔려간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사람들이 넘기고, 넘기고 해서 팔려가고요. 중국 조선족 이런 데에 팔아서 거기에서 시골에 가서 거기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장사도 하고 벌나리도 주워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살다가 중국 북한으로 다시 잡혀서 들어갔었어요.

○ 소냐 비세르코

체포를 당하기 전에 체포를 당하고 나서 중국 감옥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중국 감옥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 P씨

중국 감옥에 보름은 있었는데요. 그때는 중국 감옥에서는 무슨 그것이 막 때리고 다른 것 없고 어쨌든 거기에서는 밥이나 주고 북한 사람들 잡아서 몇 명씩 데리고 가야 되니까, 중국 연길이라는 데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인원이 차지 않아서 제가 한 보름 있다가 안 되어서 혼자서 연길까지, 거기까지 나를 데려다가 거기서 해서 북한으로 넘어가...

○ 소냐 비세르코

연길에 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 P씨

연길에 가니까 연길에는 또 따로 감옥이라는 데, 북한사람들 보내는 감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한 석 달, 6개월 씩 된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 있어서 물어보니까 한국 가다가 잡혀서 이렇게 북한으로 다 넘기기는 넘기는데는 북한에 간 애는 다 죽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는 지금 북한에 넘기지 않고서 있더라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연길에서도 저는 한 1주일 있다가 8명인가 9명인가 북한으로 북송되었어요.

○ 소냐 비세르코

하지만 P씨께서도 북송이 되었는데요. 북송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 P씨

중국에서 거기로 북송되는 것까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랬는데 북송되어서 온성 보위부라는 데에 들어가면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처음에 내가 들어갔어요. 때리고 맞고 그리고 여자들을 다 쫓짝 벗겨서 앉았다 섰다를 100번씩 훈련시키고 여자들 이런 물건을 옷이라면 다 검사하고 한국 상표가 있는 옷들은 다 뺀

고 화장품 같은 것도 몽땅 다 뺏고 어쨌든 한국의 조선국이라고 씌워진 옷에 상표가 있으면 몽땅 거기에서 뺏고 감옥에서 한 보름 동안 한 달 거의 있으면서 때리고 소금물도 없이 죽 같은 것을 계속 먹으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있었어요.

○ 소냐 비세르코

조사가 끝나고 나서 노동단련대로 보내셨나요? 수용소로 보내졌나요?

○ P씨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온성 보위부에서 임신한 아줌마들도 3개월짜리도 발로 막 차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기가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서는 얼마 안 되어서는 애기가 먹지 못해서 굶어죽고, 사람들을 거기에서 정말, 그리고 한국에 가다가 잡힌 사람들도 있었는데 거기는 와서 눈을 막아서 데리고 간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총살하기로 데리고 간다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는 온성 단련대에서 보름인가 한 달 있다가 우리 넘겨 와서 단련대 안전보라는 데로 제가 들어갔어요. 매를 엄청 맞고 다리가 다 뼈가 부서지도록 맞고, 허리고 뒤통, 그랬는데도 매를 맞고 다리가 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단련대쪽으로 넘겨가지고,

○ 소냐 비세르코

여성 죄수들과 남성 죄수들이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받았나요? 아니면 다른 대우를 받았나요?

○ P씨

똑같이 대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여자라고 해서 약한 여자라고 해서 봐주거나 그런 것 없었나요.

○ P씨

그런 것 없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일하는 거나 뭐나 똑같고 여자라고 약하다, 아프다, 어쩔다 해서 봐주는 거 없었습니다. 똑같이 거저.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여성과 남성 죄수들이 전부 같은 시간 노동을 했겠네요.

○ P씨

예.

○ 마르주키 다루스만

수용소에서 식량이 충분했나요. 무엇을 먹었나요.

○ P씨

옥시쌀 같은 거 씻지 않고 밥을 거저 그래가지고 끓여죽지 않게끔 쥐가지고서리 거기서 젊은 애들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서는 일하다가도 돌 들면 거기 벌거지 같은 것들도 주워 먹고 뱀 같은 것도 잡아먹고 어쨌든 눈에 띄는 벌러지나 그런 것들 다 먹고서는 거기서 식량미 주는 거가 안 되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 P씨

나무도 매고, 통나무 같은 것도 아홉미터짜리 여자 둘이서 같이서 들게끔 하고 그다음에 두 미터짜리는 혼자서 끌고, 그다음에 벽돌 뿌로꺼도 짓고, 집도 짓고 헌일이고 난일이고 몽땅 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죄수들은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받았나요. 배려 받았나요.

○ P씨

아니요. 그런 것 없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그리고 다른 나라 종자를 받아왔다고 발로 차고 구박하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어떻게 수용소에서 탈출할 수 있었
나요.

○ P씨

제가 10월 아마 한 6개월 이렇게 그래야 되는
데 거기에 있자니 굶어죽고, 또 그 전에 나무에
거기서 다리를 다쳐가지고서 한 이틀인가 누워
있다가 일하러 다니는데 여자들을 열인가 그래가
지고 산나물 뜯으러 다니고 콩김도 매고 콩김 매
러 갔다가 제가 맨 뒤에 서서 있다가 사람들 앞
으로 다 떼주고서는 뒤에 있다가 콩김 매는 데서
제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가지고서 아침
에 8시 반에 거기서 떠나서 밤에 이튿날 새벽 2
시인가 그때 두만강 쪽으로 와서 거기서 다시 두
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왔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중국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린 거지
요?

○ P씨

중국까지 오는 거는 두만강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 하루 만에 두만강을 건너, 저 두만강까지
와가지고서는 한 얼마 안 걸리지 않았습니
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국경을 넘을 때 어땠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

나요. 어려웠나요.

○ P씨

아니요. 국경 넘을 때 돈을 쥐서 건너가지고
서. 경비대에 중국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 건넜어
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돈은 어디서 난 것이지요. 누가 돈을 줬나요.

○ P씨

중국에 오면 애아빠가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연길까지 나오면 거기서 돈을 주겠다 하고서 제
가 거기로 건너가지고서는 연길까지 와서 저는
연길에서 돈을 쥐가지고 그 사람이 브로커라는
사람이 북한에 거기다가 먼저 그 사람이 브로커
라는 사람이 먼저 돈을 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이 저를 데리고 연길까지 와서 연길 가서 중국돈
줬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애기 아빠가 탈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어
떻게 알았나요.

○ P씨

제가 북한에서 두만강 거기까지 와가지고 아
는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다 약
속해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저희 집

에 중국에다가 전화를 걸어줬어요. 전화 걸어줘 가지고서 돈 갖고 언제 오라고 해가지고 북한두 만강 쪽에 전화가 있어서 거기서 전화를 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전화를 해준 사람들에게도 돈을 줬어야 했나요.

○ **P씨**

예.

○ **마르주키 다루스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얼마동안 있었나요.

○ **P씨**

한 7년 있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래서 중국에서 남편을 만난 건가요.

○ **P씨**

예. 중국에서 저 팔려왔을 때 애아빠가 그냥 남편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오기 전까지는, 한국 오기 전이 아니라 제가 북한에 잡혀갔다가 오기 전까지는 저 애아빠하고 같이서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서 7~8년은 지금까지 혼자서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한국에 혼자 오신 것입니까?

○ **P씨**

예.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리고 한국에 오는데 누가 도움을 주었나요.

○ **P씨**

저 아는 중국분이 한국에서 일하는데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북한사람들 다 한국에 오는데 저를 보고 중국에서 혼자서 그 고생하지 말고 한국에 와가지고서 살면 되겠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 아는 교포분이 저한테 브로커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브로커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오면 한국에 올 마음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오게 됐어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이 새로운 현실에 얼마나 빨리 적응을 했나요.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 P씨

아니요. 적응하는 거는 제가 중국에서 팔려와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서는 그렇게까지 힘든 거는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서는요 이미 그 고생을 중국에 와서 겪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국에 와서는 그렇게까지는 힘들다 이거는 뭐, 자기만 부지런하면 살아가니까.

○ 마르주키 다루스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동료들이 옆에 앉아서신 분들이 질문이 있는지 여쭙보도록 할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증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희들이 필요했던 정보들 주시는데 큰 도움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이 외에도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 혹은 더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 마이클 커비

이처럼 증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기억들을 떠올린다는 것은 힘들었을 때를 다시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왜 증언을 하기로 결심하신 건지요.

○ P씨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것도 중국에 자식이 있으니까 중국에 다니자면 중국에 자식이 있어서

저한테는 그 자식 하나밖에 없어서 겁은 좀 났지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잡혀가서 정말 엄청난 매를 그런 매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일본사람보다도 일본놈보다도 더 독하다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때리는 게 너무 그래가지고서. 사람이 너무 눈이 튀어 나오도록 맞아보고 다리뼈가 다 부러졌는데도 사람 정신 잃는데도 그렇게 때리는데.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들 안전원들이 이렇게 독하구나 하고 제가 증언을 나와서 불쌍한 백성들을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헌신짝보다도 못 여기니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 마이클 커비

대단히 감사합니다. P씨, 이렇게 증언하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P씨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이제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5분간 휴식을 갖고 통일연구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52 중지)

(17:13 재개)

○ 마이클 커비

이제 2일 차 공청회의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지금 마지막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오신 박사님들 먼저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주 초에 통일연구원에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통일연구원 쪽에서 통일연구원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저희가 맡은 임무와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통일연구원에서 오신 선생님께서는 먼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통일연구원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 조사위원회에 제시하는 모든 증거가 진실된 증거임을 저희에게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이 박사님, 통일연구원에서 같이 오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 이금순

저희 통일연구원에서는 저와 함께 저희 북한 인권조사팀이 같이 나왔습니다. 박사연구원 지금 저희 5명과 함께 석사 급 연구원 3명이 있는데 저희 오늘 전반적으로 북한인권 실태와 최근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는데 저희 동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부터 이규창 박사님, 조정현 박사님, 저는 이금순입니다. 그리고 김수암 박사, 한동호 박사, 저희 『북한인권백서』 발간팀에 있고요. 저희가 백서

를 발간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심층면접을 하고 또 입국하는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인권의 다양한 분야들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백서로 발간하고 또 특별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그런 책을 보고서를 특별 보고서를 발간은 했고 그것들을 실제로 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내용들을 다 읽어보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들을 특별히 COI 방문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국문하고 영문으로 동영상 만들었는데 저희가 아주 급하게 영어로 다 내레이션 더빙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문으로 된 동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국문으로 제작된 부분들은 다음에 또 저희 홈페이지에도 띄울 것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반적인 북한인권의 특성과 변화 동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증언 들으시고 하셨으니까 수용소 영상을 보신 다음에 8분 정도의 길이인데 이것을 보신 다음에 저희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그 백서가 북한의 통일연구원 쪽에서 저희가 받은 백서는 S7으로 두도록 하겠고요. 보여주시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증거 S8로 저희가 번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이금순

저희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조금 실수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자막 같은 부분들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인권 실태와 최근 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북한 체제 특성하고 인권의 문제를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동료들이 생명권, 그다음에 신체자유안전, 평등권, 식량권, 그리고 이동의 자유, 탈북자 문제를 아주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저희가 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받는 질문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인권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사실 큰 틀에서 본 북한의 체제가 변하지 않고 북한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제적이고 중대한 인권유린이 지속되는 상황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사안별로 북한 내부의 변화의 흐름들을 조금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받고 사안의 변화들을 조금씩 찾아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북한에서 체제적이고 중대한 인권유린이 지속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전체주의적인 독재체제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에 이유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북한체제특성이 지금 국가 권력에 독점되어 있고 주요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국유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가 유지되던 그런 것들, 그리고 집단주의 사회주의 원칙인데 실제로 이런 계획경제체제가 일본은 붕괴되고, 경제난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그것을 대치할만한 제도화된 경제체제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에서 취약한 계층들의 인권상황들은 계속 더 심각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북한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체제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이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을 다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반 범죄도 이것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아주 엄격한 처벌을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가 당과 권력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다음에 북한 사회 집단의 전체적인 안보위협을 이후로 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체제위기에 원인을 갖고서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집단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군사력을,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에 국가의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그런 구조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만성적인 경제난 상황에서

도 이렇게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의 배분을, 국가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 자랑하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된 상황, 그래서 자유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한이 자랑하던 사회권도 붕괴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되면서 오히려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서 탈북자들을 면접을 해보면 실제로 김정은이 법의 정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을 존중하는 서방의 법치가 아니라 실제로 법을 통치 수단으로 쓰는, 법에 의한 지배, 이런 식의 법정치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탈북도 더 단속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 정보 유입도 더 강력한 처벌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경제난으로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시장이 확산되는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때때로 배급체제를 조금씩 재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원이 부족해서 공식배급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 13년 저희가 면접을 해보면 탈북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경지역, 예를 들어 회령이나 이런 데에는 부분적으로 식량배급을 재개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탈북을 조금 더 단속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2009년에 화폐 개혁 한 이후에 북한의 상황들이 실제로 굉장히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

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물가도 올라가고 또 환율이 폭등을 하면서 취약계층들의 상황들이 더 악화되어서 인권이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가치로써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 법률에 규정된 권리조차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단속이 강화되면 실제로 이제 북한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뇌물을 줄 수 없는 계층들이 연루되어서 특별단속에 걸리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북한 계층 내에서도 실제로 이런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북한의 정치체제의 구조적인 그런 모순, 그다음에 경제난, 그리고 세 번째,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권리나 이런 자유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증대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규창 박사님께서 공개처형, 그다음 생명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 이규창

제가 생명권, 공개처형과 신체자유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권, 공개처형, 신체자유안전에 대한 권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한의 분야가 형소법 분야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2004년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1년에 두 번씩 계속 형법을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아니라 처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나를 더 추가를 했고요. 무엇보다 문제는 2007년에 형법부칙 일반범죄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형태의 법이 없는데 독특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모두 23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마약, 밀수, 밀매 등 16개 조문에서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극히 무거운 경우'라는 아주 추상적인 용어를 써서 자의적으로 북한주민이 사형이 처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상업체제에서 문제점은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김정은 지시, 이렇게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헌법보다 상위규범으로 작동하고요. 그래서 형법에도 북한

형법은 범죄를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 부과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최고 책임자의 교시나 지시로 포고문의 형태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사형에 처해지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공개처형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요. 북한 공개처형은 북한주민들에게 정권유지 차원에서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실시됩니다. 그다음에 비윤리적이라는 점도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사형을 하더라도 최소한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대중들이 모인 곳에서 처형해서 개인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 재판을 조직하는 경우에 판사, 검사, 인민 참심원, 변호사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대개 현지 공개재판 후에 공개처형이 이루어지는데 현지 공개재판 과정에서 이런 재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탈북자들은 대개 공개재판의 경우에는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증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공개처형 추이를 보겠는데요. 2006년, 2007년, 2008년. 특히 2009년에 정점을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처형됐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형법개정, 2007년 형법부칙 일반범죄 제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김정일 후계구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약간 감소추세인데 아마도 그 이유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니까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그

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공개처형을 하는데 오히려 북한주민들은 공개처형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래서 북한당국의 의도가 주민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그런 하나의 요인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공개처형 사유는 사회일탈행위, 인신매매, 살인, 강간, 절도 이런 것들, 경제적인 류의 국가기물절취, 마약밀수밀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2011년에는 마약거래에 대한 공개처형이 많이 있었고요. 북한이 주민통제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주민들이 보위부원들과 보안부원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통제하는 보위부원들과 보안원들에게 불만을 갖고 대항하다 그 혐의로 공개처형되는 일들이 있고요. 조금 전에 화폐개혁 말씀해 주셨는데 화폐개혁 후에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육먹는 행위, 가축 절도 등의 행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주민이 신체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장 많이 침해당하는 게 정치범 수용소고요. 그 외에 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의 여러 구금시설이 존재합니다. 교화소는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노동 교화형이 확정되는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고, 노동단련대는 절도범, 집단생활이탈자 등이 수용되는 시설로 전국 시군에 한 개 정도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동단

련대에 수감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인데 북한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형이라는 재판을 받고 수감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결소는 주로 탈북자들을 조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류장은 범죄혐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구금되어 죄역을 조사받는 장소로 가고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구류장과 인민보안부가 운영하는 구류장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노동단련대와 집결소는 북한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공식 구금시설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고, 북한주민을 노동단련대에 구금할 것인가 여부는 인민보안부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동단련대의 경우는 재판소에서 정식 재판 없이 북한주민의 인신을 구속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구금시설 또는 교정시설의 여러 인권유린이 있는데요. 2009년 4월에 개정된 북한헌법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고 헌법, 형사소송법에도 법에 근거하지 않는 북한주민 체포, 구속을 금지하고 또 이걸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이 많이 있는데요. 단시간에 육체적 부담을 주어 주민들을 교형하고, 집결소의 경우에도 집결소마다 실태가 다른데 일부 집결소의 경우에는

강제송환된 북한주민이나 장시간 중국에 체류한 북한주민들에게 강도 높은 강제노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금시설에서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지속되어 있고요. 특히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구류장 내에서의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금시설내의 식사문제, 위생, 의료상황 등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이런 열악한 영양, 의료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감자들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임신여성에 대한 강제낙태행위가 집결소를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고요.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정은 체제에 들어오면서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통제에 대한 법적인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법, 형법부칙들이 계속 개악되고 있고, 또 2011년에는 행정처벌법이라는 것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국방관리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 점이 가장 특이한 점인데 북한에서 말하는 성군사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통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2012년 동안에 공안통치를 실시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또 하나는 외부정보 및 문화유입을 차단하는데 북한당국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이 ‘법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사회가 말하는 ‘법치’와는 다른 개념으로 법의 의한 지배, rule of law가 아니라 rule by law로 최근에 김정은이 법치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암

다음은 평등권과 식량권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세계인권선언이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평등한 권리 향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원칙이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이고 UN Human Rights Committee’s General Comment에 보면 소위 토대에 따른 구별이나 배제나 제약, 선호의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권리나 자유의 향유를 무력화시키거나 손상시킬 의도나 목적을 가질 경우 차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대에 따라서 이런 구별, 배제, 제약, 선호를 해서 북한주민들의 권리나 자유를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차별정책이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분정책은 개인이 사회적, 가족적 배경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계층을 분류하고 이러한 계층에 따라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이런 가족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주민들을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으로 분류하고 있고 핵심계층은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엘리트 계층을 말하는 것

이고, 복잡계층은 북한체제 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분정책이 문제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인데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의 북한당국이 규정하는 과오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연좌제 형식으로 대물림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성분에 따라서 분류된 계층에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정책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북한은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엘리트 계층, 당 간부, 군의 장교라든지 북한체제의 통제의 핵심을 책임지는 인민보안부나 국가안전보위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이고요. 또 교육권 차원에서도 보면 북한 체제의 핵심 엘리트를 배출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공대 등 중앙의 대학에 가는 이런 성분에 따른 차별이 상당히 여전히 심한 것으로 탈북자 증언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식량권 부분에서 또 자세히 설명 하겠지만 성분 식량권의 차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라는 것이고요. 또 성분이 건강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 무상치료제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난으로 인해서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거의 붕괴된 상황 속에서 소위 핵심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평양이나 중앙이나 도 단위의 어떤 3차, 4차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붕괴가 낮기 때문에 핵심엘리트 계층은 여전히 건강권의 측면에서 중요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는 리 단위나 이런 진료소나 인민 병원들은 상당히

붕괴 상황이 심각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계층이나 복잡 계층의 계층도 이런 건강권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아주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성분에 따라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성분이 좋은 경우에는 성분이 나쁜 계층보다는 형량이나 이런 데에서도 무죄를 받는다. 이런 증언도 저희들이 수집할 수 있었고요. 저희 연구원이 심층 인터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별 정도를 조사했는데 67.9% 정도가 차별이 심하다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고 다만 경제난으로 인해서 북한 당국이 차별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제난에 따라서 시장을 매개로 해서 이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정치적 차원의 핵심 엘리트 계층에는 여전히 성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행정관료나 기업소의 지배인의 경우에는 뇌물이나 이런 경제력에 따른 요소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의도하지 않은 성분의 완화 추세는 파악되고 있다. 그렇게 증언들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시장이 확산되면서 상당한 부분 또 중앙이 엘리트 계층에 대한 배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또 이 2가지, 시장의 확산과 불충분한 공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패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Transparency International 같은 기구에서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최하위로 순위가 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패는 작년에 저희

들이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부패가 이러한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불법적으로 외부의 DVD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뇌물을 주면 처벌을 면하는데 뇌물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북한이 주장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해서 뇌물을 주고 못 주고에 따라서 처벌의 이런 것들이 차별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요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정치범 수용소나 탈북행위에 여러 번 연루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차별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북한은 이제 2003년 장애인보호법을 제정을 했고 금년 7월 3일에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는 등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북한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분 차별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평양이나 이런 어떤 외국인 출입이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이런 증언들도 다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권 문제에도 COI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식량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식량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UN의 어떤 문건들에서도 보면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서 일어나는 식량권 문제는 북한 당국이 존

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에서 만성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부분은 1차적으로 북한식 주체 농업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선군정치에, 국방공업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등 자원의 왜곡된 배분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식량 부족들이 일어나는 측면이 강하고요. 또 이러한 식량 부족 속에서 북한 당국의 차별적 배분 정책이 일반 주민과 엘리트 간의 식량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체제 유지 차원에서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엘리트에 대한 배분 정책은 지속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에 대한 배급들은 거의 붕괴되었기 때문에, 중앙배급체제가 주민들은 시장을 매개로 해서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관리와 결탁할 수 있는 부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반 주민 사이에서도 식량에 대한 접근권, 물리적 접근권과 경제적 접근권에 상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의 차별 정책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배급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양호했는데 최근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국가에서의 과도한 공출로 인해서 황해도 같은 곡창지대에서의 어떤 농장원들의 어떤 식량권도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폐개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

권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화폐개혁 이후에 일시적으로 꽃제비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은 다시 호전되는 그런 측면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식량권 화폐개혁으로 호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2012년 WFP나 유니세프나 WHCO가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조사한 2012년 영양실태조사보고서에 보면 여전히 5세 미만의 아동들의 어떤 저체중이나 만성영양장애, 이런 것들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정현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동의 자유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 관련해서 북한은 국제조약은 물론 98년 자신의 헌법에서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심각한 이동의 자유 제한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국내이동자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행증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일반 여행증 자신이 거주하는 시나 구를 벗어날 시에는 일반 여행증이 필요하고 또 특수지역, 국경 지역이나 평양과 같은 특수 지역으로 갈 때는 좀 더 엄격한 특수 여행증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또 약간의 변화 현상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부패 구

조가 이제 조직화되면서 뇌물을 통해서 여행증을 못 발급 받을 만한 사람도 발급을 받고 기간도 단축을 하고 또 여행증 자체를 없이 여행하다 걸려도 뇌물 내고 그냥 처벌을 면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증언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자동차가 상당히 많지 않은데 관용차를 개인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은 물론 국외로의 이동, 해외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상상하기 힘듭니다. 최근에는 북한 근로자의 해외 송출이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찾아지고 또 공무상 합법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을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반 주민들이 여권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아서 국외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는 일부 특권 계층과 또 이러한 계층들이라고 하더라도 고액의 뇌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국경지역, 중국과 면하고 있는 국경지역에서는 중국을 일시적으로 방문 시 도강증이라는, 약간 여권과는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사,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사, 마음대로 북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또 뇌물을 주면서 음성적인 주택매매가 90년대 경제난 이후에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강제추방의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

서 또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어떤 정치적으로 불순한 세력, 반체제 인사 및 가족 등에 대해서 강제추방을 정책적인 도구로 사용을 해서 예를 들면 평양에 있던 많은 어떤 특권 층 조차도 정치적인 혐의가 붙으면 가족과 함께 모두 함경북도라든지 그러한 아주 오지로 강제추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2000년대에는 탈북자 가족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강제추방, 국내로 추방, 산간오지로 추방을 하는 것입니다. 국외로 추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탈북자 가족이나 CD-ROM 같은 어떤 외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강제추방을 시행한 바가 있고 2010년에는 새롭게 매춘이나 마약, 북한에서는 얼음이라고 그러는데 빙두, 그런 마약 밀매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방을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또 나오는 증언들은 증언들이 이제 강해졌다, 약해졌다 나뉘기도 하는데 최근에 새롭게 확보된 증언은 이런 식으로 강제추방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결국에는 탈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뇌물을 실제로 사용해서 강제추방을 당했지만 다시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오는 경우 등으로 인해서 강제추방과 관련된 일들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 이런 증언들도 최근에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단순도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단련대나 6개월 미만의 노동단련형 부과가 일상적인 경우였지만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남한으로 망명을 시도한다든지, 외국인이나 기독교인을 접촉했을 경우에는 최소 노동교화형, 일반적인 교도소 행위나 아니면 심한 경우 정치범 수용소까지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정치적 수용소는 재판도 거치지 않은 초법적인 조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약간 최근 경향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경통제가 강화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 실제로 사살 경우가 많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국경지역에서는 탈북 하다가 도강하다 걸렸을 경우에는 삼족을 다 멸한다, 또 현장에서 바로 총살한다, 사살한다는 경고가 널리 퍼졌었습니다. 실제로 철조망이나 감시 카메라가 국경에 상당부분 설치된 상태이고요. 중국과의 휴대폰 통화, 불법 휴대폰 통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 차단벽, 전자 장벽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 뇌물 때문에 국경경비대가 도강을 방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경경비대를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순환 배치하는 것들도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최근 상황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나왔지만 탈북에 대해서 양면책을 써서 유화책도 일부 존재합니다. 국경지대에서 과거에 배급하지 않았던 가정에 대해서 일부 식량배급이 재개되는 증언도 보고되고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국경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비용이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서 일단 국경경비대나 그쪽 경비 서는 사람에게 뇌물이 늘어났을 것이고 그러한 위협부담 때문에 브로커 비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현격하게 감소해서 2012년 입국자 수가 2011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고, 금년도 달마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중국내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2009년과 비교해서 2012년에 비교해 보니까 상당수 줄었고, 결과적으로 동북 삼성에 1만 명 내외의 과거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의 탈북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작년 저희 연구원과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이 조사했지만 탈북여성이 중국남성과 결혼해서 출산한 아동의 경우는 오히려 일반 탈북자보다 많은 2만 내지 3만 명 정도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늘어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 여성이 출산한 아동 문제가 중국내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탈북자 관련 이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순

저희가 오늘 짧게 분야별로 설명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 아까 동영상도 저희가 구체적인 증언 자료들은 저희가 발간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워포인트가 우리 말로 돼 있어서 이걸 영어로 일부 번역을 해서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통일연구원에서 오신 다른 연구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으면서도 간략하게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 저희 조사위원회 측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루어야 하는 이슈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두 가지 하고요. 답을 받고 질문을 하고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들 중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에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한국 정부에서 받고 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일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는 정권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통일연구원은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색안경을 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일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어떠한 발행문을 만들거나 결론을 냄에 있어서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 이금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출연연구기관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자로서 북한인권을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1994년에 통일연구원에 입사해서 1996년부터 북한인권백서 작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백서의 자료 수집은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저희 나름의 선별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선별하고 그 사람들을 심층면접해서 그 결과들을 갖고 KINU에 NKHR 데이터베이스를 갖고서 그걸 근거로 해서 활동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북한 인권만을 들여다보지 않고 국제사회 인권 메커니즘과 다른 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하면서 북한인권백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압력이나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서 저희의 연구활동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부의 정책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백서를 발간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개선의 방식을 찾으려는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

고 있고 저는 그 나름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 동료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의 선별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선별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인권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연구자들이고, 또 저희가 정부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 김수암

이금순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특히 북한인권조사시스템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저희 연구팀들이 전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조사내용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고, 또 1996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국·영문 북한인권백서 내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인권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를 우리가 나름대로 규정을 해서 북한인권백서를 독립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 북한인권백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정부가 관여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체 조사시스템과 조사내용의 연구를 위한 활용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100% 유지하면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1996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다른 대통령님들께서 여러 정당에서 나오셨고요. 그러면서도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리고 통일연구원에서 한국 내에서 그리고 외국에 다른 국가에서도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나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 이금순

저희가 사안별로 그리고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하면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NGO,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NGO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상황 파악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한반도에서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정치화된 지형에서의 문제점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의 인권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권리별로, 예를 들어 북한탈북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신매매 상황들이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 다른 지역과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인권상황은 활동하는 NGO들이 실제로 저희 북한인권을 주로 들여다보는 인권단체들은 또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조금 덜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진보단체들은 또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북한인권은 조금 더 우선순위가 뒤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진보적인 단체들과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듣고 상호소통하기 위해서 한국의 인권문제,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문제가 왜 국제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지 하는 문제들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의 연구 중심이 주로 북한인권이고 저희가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면접하는 것도 탈북자들 위주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내 인권문제에 대해서 다른 기관보다는 조금 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인권의 문제들을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의 구금시설, 재판을 받고 수용되는 수감되는 북한의 교화소 내의 인권실태를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실제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상황도 심각하지만 북한에서 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가혹행위나 아까 동료들이 발표한 것처럼 영양부족, 강제노동 그런 것 때문에 사망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화소 내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국의 구금시설인 교도소나 구치소 이런 곳들을 방문해서 이런 곳의 인권 개선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 연구팀이 가서 보고 있고

실제 이것들을 앞으로 북한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식인지까지도 고민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인권적인 감수성을 갖고 실제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조정현

연구원 설립 목적 때문에 북한 인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권 학자로서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국제인권문제와 한국의 인권 문제 이런 것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의 설립 목적 상 저희 센터에서 직접 발간한 것은 북한 인권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인권 연구 활동들을 안 하는 것은 아니요.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외국 사람한테 선의가 있으면 물론 이제 민주적으로 이제 선출된 정치인들이 있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서양인들에게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외국 사람한테요. 정치적인 한국 내에서 정치적인 시각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북한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시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

시겠는지요?

○ 이금순

공론화되는 회의 상에 저희가 참석했을 때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보이는 그런 반응, 실제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들만 되풀이하는 북한 당국의, 북한의 대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국제사회, 그리고 이제 저도 저를 포함해서 이것이 이제 터무니없고 조금 우스꽝스러운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 한반도에서 남북한이라는 분단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일환들이 한반도의 남북한을 조금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서 북한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서 이것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다투스만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런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저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고 또 저희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그것들을 또 국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름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북한의 인권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분단된 상황에서 갖고 있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들이었기 때문에 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지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치적인 질문을 드리면 사실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나중에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Defector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탈북자요. 그런데 사실 영어로 Defector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했던 분들은 한 가지 생각만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식량, 음식, 그러니까 이 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질서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제대로 먹자, 이런 데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어를 Defector라고 한다면, 글썄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했던 분들이 탈북한 주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정치적인 성향을 띄지만, 탈북자들이 주로 탈북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식량부족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받은 여러 가지 그런 학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탈북자들의 주요 동기에 대해서 과연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것인지, 그리고 영어로 Defector라고 사용한 것이 올바른 용어 선택일까요?

○ 이금순

저도 이제 탈북자를 어떻게 영어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North Korean Defector, North Korean Refuge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North Korean Escapee라는 용어를 선호를 했었는데 실제로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는 경우에 이들이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을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을 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 차원에서 보면 북한 당국의 차원에서 보면 북한 체제를 버리고 적대적인 남쪽으로 간 사람들이고 또 남한으로 온 것이 가족이 남한으로 온 경우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처벌의 개념 때문에 이것이 Defector라는, 한국에 온 탈북자를 Defector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탈북한 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을 건너서 왔지만 중국에서 숨어살다가 단속되면 강제송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신분 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실제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탈북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택한 것 자체는 북한 탈북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North Korean Defector라는 말을 한국에 온 탈북자한테 규정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조정현

방금 말씀하신 것 동일하고요. 많은 경우, 식량 사정,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 했으니까 Defector라고 하거나 혹은 Refugee라고 하기에 조금 다른 종류이지 않냐, 하는 주장도 분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루스만 보고관도 그렇고 이전 특별보고관도 규정을 하기를 탈북자들이 Refugees Sur Place, 현지난민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좀 더 난민법적으로 보면 방금 설명에서 들으셨듯이 그런 어떤 식량에 대한 접근권, Access To Food 자체가 사실 상당히 차별 정책에 의한 Discrimination에 의한 아주 체계적인 차별의 하나로써 식량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

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먹는 문제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경제적 문제라고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서 파악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특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적절한 분석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요. 정치, 경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유념할 점은 경제적 이유로 탈북을 했건 정치적 이유로 탈북을 했건 북한에 강제송환 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고 간주를 하고 조국을 배반했다고 간주를 해서 Persecution, 박해를 가한다. 그러니까 Political opinion based persecution이지만 not actual political opinion, but inputted political opinion based persecution so that could be a refugee sur place based on that logic. Because they have not actual but inputted political persecution made by the government itself. So... Sorry.

○ 마이클 커비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놀랐는데요. 언론의 자유, 텔레비전의 자유, 매체의 자유, 그리고 핸드폰의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북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금순

정해진 시간에 짧게 발표를 하느라고 그 이슈를 다루지 않았는데요. 저희 백서, 그리고 저희 조사하는 것에는 실제로 언론의 자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요. 특별히 북한당국이 외부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외부의 영상물 같은 것을 본 사람도 처벌하고, 그걸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고, 그다음에 중국 핸드폰을 갖고 국경지역에서 통화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그걸 갖고 남한에 있는 가족과 통화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된 소수의 엘리트 계층들만 허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북한 내 언론의 자유가 아주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게 주어져서 저희가 그 안에 최대한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빠뜨렸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제 다루스만 씨에게 질문이 있는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통일연구원 연구원, 그리고 비디오영

상을 보여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의는 이전에 있었던 토의의 진행형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통일부와 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상당수의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본 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저희가 이해한 바 2만 5천명이라는 이 숫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집계한 것인가요. 왜냐하면 일부 탈북자들은 남한이 아니라 다른 국가로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인데,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2만 5천명이라는 이 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2만 5천명을 좀 더 세분하게 구분해서 2만 5천명 가운데 몇 %가 경제난 때문에 북한을 탈북했는지 등 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망명 신청자들도 있는지, 그리고 반체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가해자들의 숫자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 이금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숫자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집계되지만 한국을 거치지 않고 제3국에 정착한 탈북자수는 UNHCR에서 보고하는 전체 통계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해외 정착하는 탈북자들 중에는 한국을 거쳐 간 탈북자들도 상당수 있고, 북한출신이 아닌 중국 조선족이나 탈북자를 가장한 사람들도 상당한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실제

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와 중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중국 내에 체류하는 탈북자수를 추산하기 위해서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2012년 그리고 올해에도 현지에서 지역을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연말쯤이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국하는 탈북하는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이유로 탈북을 했는지를 저희가 면접조사에서 카테고리 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탈북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한국에 정착해 있는 가족이 오라고 권유해서 탈북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사실 탈북한 동기가 굉장히 복잡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족들이 오라고 해서 탈북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큰 동기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어서 그걸 데이터로 갖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최근의 새로운 특징은 이미 한국에 정착한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한국에 오도록 권유해서 중간에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서 중개해 주는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으로 오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한국으로 오는 그런 비율들이 국내입국 탈북자의 거의 반 정도까지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따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비율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북동기별로 파악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

고 있습니다.

○ 조정현

제3국에 있는 탈북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고, 국적을 취득하면 통계에서 사라지더라고요. 통계에서 없어지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과거 독일이나 영국, 최근에 캐나다에 정착하는데 수백 명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두 합쳐도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와 비교했을 때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독일, 영국이 문을 닫은 이유, 또 캐나다가 최근에 문을 닫으려고 하는 이유는 남한 국적을 정상적으로 획득하고 그걸 숨기고 망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다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맨 처음에는 그걸 도와주려고 하다가 한국에 거쳤다가 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컨트롤해서 막는 그런 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금순

그리고 가해자 부분에 대한 정보, 저희가 사실 한국에 탈북자를 받을 때 보호를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중에 예를 들어 반인도적 범죄를 북한에서 저질렀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범죄가 아닌 중대한 일반범죄,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난민보호를 하지 않는 그런 대상들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는 한

데 실제로 한국은 그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우리 국민으로 해서 일단은 국적을 부여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 보위원이나 안전원 출신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구금시설에서 수감자들끼리 인권유린을 하도록 강요하는 북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감생활에서 자기가 반장역할을 하면서 다른 수감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일부 있기는 한데 그것들을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정보를 저희가 수집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인이 인권을 유린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고 본인이 인권의 피해자인 부분들에 대한 증언들이 많이 있고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실제로 보안원이나 보위원들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정보들이 취약한 것이 저희의 한계이고 실제로 앞으로 COI가 활동하실 때도 가해자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은 생존자와 가해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통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인권과 관련해서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통일연구원에서 하시는 연구는 단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프로세스라든지 책임감에 대한 통일연구원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이 백서에 있는 내용 중에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북한 체제의 피해자였는지 아니면 가해자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활동을 할 때에 통일연구원에 아마 자료라는 측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통일연구원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꼭 여쭙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비대 중에 한분이었던 분이 증언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혹행위를 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이 어떠한 가혹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언은 해주셨는데 바로 저희가 본질적인 부분까지 조사할 수 있는 데에는 통일연구원의 지원이,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금순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 기본 정보에도 이런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심층인터뷰를 하는 자료에는 직업이나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 파악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교화소 같은 데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가해자였던 그런 경우들에 대한 증언들도 같이 수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40페이지에 심층면접지에는 모든 상황 별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들을 다, 그래서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해서 그 개선의 방식을 찾는 것도 저희의 주요한 관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음에 Accountability 자료로, 기초 자료로,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무언가 또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구자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Investigation은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저희가 인터뷰 하신 분들의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이금순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 저희의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검색은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드리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탈북자들의 동의를 받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인적정보에 대해서는 밖으로 공유를 하지 않고 저희의 온 아이디 넘버를 부여를 해서 NKHR 아이디 넘버로만 이렇게 외부에, 예를 들어 백서에도 저희가 정보를 공개할 때는 이름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고 이제 저희 아이디 번호로 하고 있는데 가해자,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사실 그 마찬가지로인데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아주 없지는 않은데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드릴 수 있을지는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현

주로 이름 아는 정도면 아주 낮은 수준의 간수 같은 사람이거든요. 숫자도 제한되지만 직책 자체가 국제범죄, 인터넷이나 Crime을 한 Perpetuate로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오히려 예를 들면 Crimes Against Humanity에 관련해서, 정치범 수용소 관련해서

책임자를 찾으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최고 지도자급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정치범 수용소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범 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부장 이름 정도는 다 남한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인민보안부장 이름도 알고 있고 다만 그 아래 구체적인 몇 호 관리소장이 누구이냐, 몇 호 정치수용소 관리소장이 누구이냐, 그런 것까지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냥 타이틀 그 자체로, 직책으로도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증언들은 Cumulative Evidence, 조금 종합적으로 그러한 어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정보는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관련해서.

○ 이규창

그리고 아까 증언한 경비대원이 어느 출신 경비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혹행위를 주로 지도원이나 계호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동료들이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해자를 판명하는 데 어려운 그런 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정현

일부러 처벌을 안 받으려고 계호원이라고 그

러는데 guard가 일부러 본인이 직접 안 때리고 반장 같은, 수감자 중에 반장을 하나 세워서 head up inmate한테 너가 내려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대한민국은 로마 조약 당사국인가요?

○ 조정현

... implementing legislation.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통일연구원의 데이터나 그런 이름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한두 개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4개의 수용소 중에서 탈출한 사람들 중에서 2만 5천 명 중에서 한 명만이 이제 경비대에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 이금순

그런 정보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는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고맙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굉장히 많은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다양한 분들하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불복을 하는지, 이제까지 심층인터뷰를 했던 분들 중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어떤 저항적인 그런 경향을 보인 분들이 계셨나요?

○ 김수암

예, 북한체제의 특성이 주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체제에 대한 불만을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층인터뷰를 할 때 이면에 담긴 의미들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숫자가 이미 탈북을 결심했을 때는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먼저는 음식에 대한 생활에 대한 고통에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부단한 자유를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충분히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불만이 붕괴가 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이금순

불만을 그 안에서 표출하기보다는 탈북을 결정하는,

○ 소냐 비세르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북한에서 오는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시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정확한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을 여쭙았던 것뿐입니다. 고맙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가 되었는지, 이런 분들에 대한 성함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소수에 해당해서,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탈북한 사람들의 성함을 저희에게 줄 수 있는지, 그리고 2만 5천 명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몇 %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와 관련된 정보이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2가지 정보를 요청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두 한반도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국민으로 보니까 다 한국 국적이 부여받나요? 혹시 예외사항이 있나요? 어떤 사법적인 결정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 예를 들어서 가해자라든지, 북한에 있는 가해자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을 안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특히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답을 모르셔도 괜찮은데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금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하는데 실제로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들을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국제사회에서 Crime against Humanity나 아니면 중대한 일반범죄 그리고 마약거래, 항공기납치 이런 식의 것들, 그다음에 비정치적인 심각한 범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에서 이들이 보호를 요청했을 때 대한민국으로 이송하는 것을 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느냐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고 실제로 헌법에 의해서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에 관련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런 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국제기준에 맞

게 처벌을 다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법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그런데 저희 동료들 중에 법학자들이 두 명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규창

이금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국적 문제와 탈북자 정착 문제는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항목 범죄, 이런 범죄의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착지원 대상자에서는 제외하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 헌법 3조 영토조항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국적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국적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려면 한국에 와야 되지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는 별도의 국적부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호적이라고 그랬지요. 지금은 호적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그렇습니다. 범죄를 했다거나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국적을 박탈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오늘 아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질문에 상당히 잘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여

러분,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통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제회의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통역을 들어봤는데 정말 이처럼 정성껏 통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 모두 통역사 선생님들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통역사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8월 22일 9시에 다시 공청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